금주의 기도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7)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4월 26일 (토) 제 148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읽어야하는 성경...바빠서 못 읽는다!

바나리서치, '2014 미국사회 성경 실태 연구 설문 발표

성경이야기는 이제 영화 스크린과 TV 화면을 통해 읽는 것보다는 보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미 개봉된 "하나님의 아들", "노아" 등과 다른 성경 이야기들이 올해 스크린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아직도 진리라고 믿고 있는가?

해마다 바나리서치는 미국성서공회와 함께 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얼마나 자주 읽는지를 파악하는 설문(Annual State of the Bible)을 벌인다. 올해에도 설문을 통해 6가지 경향들이 나타났다(The State of the Bible: 6 Trends for 2014):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계속되는 성경의 역할에서부터 디지털 성경 읽기 증가, 특별히 밀레니엄 세대의 성경에 개한 회의적 시각 고조 등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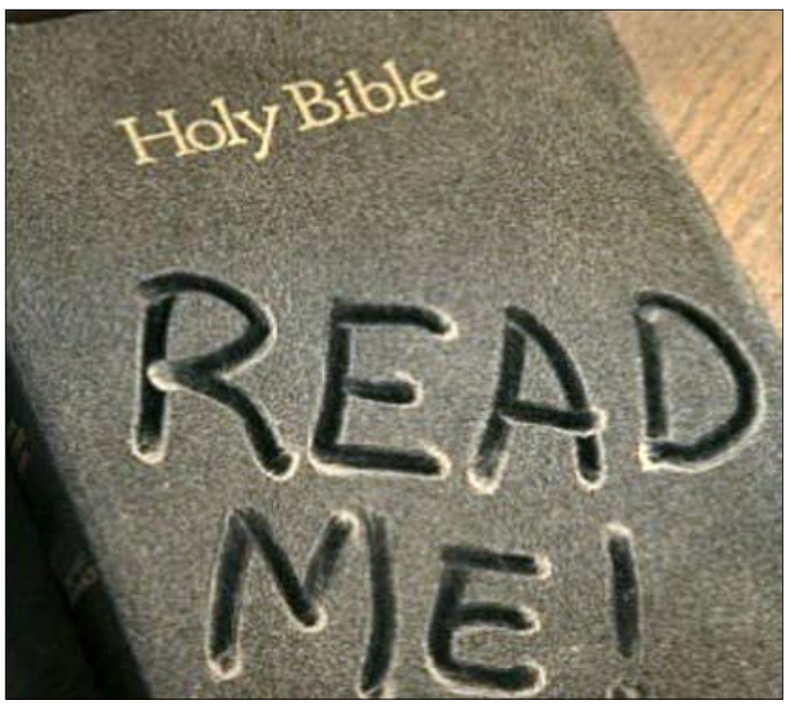
1. 성경 회의론과 성경을 믿는 비율 동일

성경에 대한 미심쩍은 회의론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동 설문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성경 회의론이 성경을 믿는 비율과 동일해졌다. 성경을 "단지 지혜나 격언들에 대해 사람이 쓴 또 다른 교훈 중의 하나"라고 믿는 회의론적, 불가지론적 사람들의 숫자가 지난 3년 만에 10%에서 19%로 거의 2배 증가됐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한 주에 성경을 최소한 4번 읽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의 숫자와 동일해진 것이다.

세대별로 보면, 성경을 미심쩍어하는 세대는 바로 48세 미만으로 남성으로 캐톨릭 교인이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한 번도 위탁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성경의 권위인정하락 불구 대부분 미국인들 성경에 우호적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는 사실을 믿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2011-86%, 2014-79%), 성경은 죽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성경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실제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에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56%로, 아직까지도 과반수이상이 성경에 우호적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달라지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은 변함이 없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성경은 용서(91%), 관대함(88%) 그리고 인내(89%)를 권장하는 반면, 전쟁(62%), 노예제도(60%) 그리고 매춘(82%)을 반대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소한 10가정 당 9가정들은 한 권 이상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88%), 1가구 당 평균 성경 숫자는 4.7권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한 주에 정기적으로 읽는 미국인들은 불과 37%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다고 해도,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57%에 머물고 있다. 결국 성경은 미국 사회에서 일동의 문화적 상징으로만 자리 잡고 있지. 항상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경전으로는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분주함이 성경 안 읽게 만드는 주범!

그렇다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디지털에 밀려 괘종시계나 LP측음기들이 골방이나 창고에 쌓이는 것처럼, 성경 역시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다, 바로 너무 사람들이 분주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비해 성경을 읽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바빠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가정 등을 책임지기 위해 너무 분주하다고 40%가 응답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 7%나 증가된 것이다.

이외에도, 삶의 중대한 변화(17%),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됐고(15%), 이혼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 등과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경험(13%)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삶(8%) 등이 성경을 안 읽게 만드는 원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의 미국인들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떻게 시간을 내거나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4. 스크린 시대에 맞춘 성경 이야기 등장 〈3면으로 계속〉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남가주지역에서 일제히 열렸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OC지역 연합새벽기도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린 사우스베이지역 연합새벽기도회 모습.

후러싱4지역 행복한교회에서 열린 부활절연합새벽예배에서 전희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사셨네! 한 곳에 모여 주님 찬양

미주 각지역 한인교회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오렌지카운티 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가 20일 오전 5시30분 남가주지역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오렌지카운티지역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 그리고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복수 장로) 공동주최로 열렸다.

민경엽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김영찬 목사가 기도를, 신복수 장로가 성경봉독을, 나침반교회 찬양대와 은혜한인교회 찬양대, 그리고 얼바인온누리교회 찬양대가 특별찬양 했다.

〈3면으로 계속〉

2면 하나님은 누구든 추적하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3면 "변하는 아시아와 새로운 선교전략" (1) 노봉린 박사(선교학)

16면 "God so Loved the World" 전시회 갖는 진효비 화백

시 론

옆구리 가볍게 쿡 찔러서...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지난주에 우리교회는 새 교회당에 입당한 이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교육관 리모델링을 마쳤다. 그 중에는 본당 입구에 있는 낙후된 화장실 수리도 포함이 되었다. 기왕이면 남자화장실에는 자원을 아끼고 환경도 보존되는 소변기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워터프리" 소변기로 시공했다. 물을 내리지 않고도 소변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지만 이런 소변기를 쓰면 엄청난 양의 물을 아낄 수 있다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볼 일을 보다 보니 이 소변기의 하수구 바로 위에는 작은 파란 조개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생뚱맞은 자리에 생뚱맞게 조개그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는데 "넛지"(Nudge)라는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다. 우선, 넛지라는 말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뜻이다. 즉 강요하지 않지만 탁월한 선택을 하도록 시선을 옮기게 해주고 마음이 끌리게 함으로 성공시키는 자극이랄 수 있다. 그래서 넛지 효과라는 말은 경제학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있는 스키폴공항의 남자화장실 소변기 중앙부분에 검은 색 파리가 한 마리 그려져 있다. 대개 남자들은 볼 일을 볼 때 조준하는 방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변기주변이 더러워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신학교 남자화장실에는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관리집사가 보다 못하여 "한 걸음만 더 앞으로"라는 애처로운 문구를 써 붙여놓은 기억이 난다. 한데 그 공항화장실 소변기에는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놓으니까 남자들마다 볼 일을 볼 때 파리에 정조준을 한다는 것이다. 눈앞에 목표물이 있으니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자연히 발사물을 변기 가운데 맞출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낸 아드 키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경이롭게도 화장실이 80%나 더 깨끗해지는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우리교회 소변기의 조개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파리 대신 파란조개를 그려넣은 것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나는 우리교회 칼럼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교우들에게 파란조개를 잘 맞추자는 우스운 주문을 하기도 하였다.

목회사역에도 넛지 효과는 적용이 되는 것 같다. 매주일 모이는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은 결국 '옆구리 가볍게 쿡 찔러서' 신앙생활 잘하자고 독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세게 찌르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기는커녕 시험들기 딱 알맞을 것이다. 그렇다고 찔러주지 않으면 양과 같이 자존능력, 방향감각이 부족한 교인들은 자칫 우리를 떠나 길 잃고 헤매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옆구리를 찔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넛지 효과는 전체에게보다 개인에게 적용할 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는 서로가 다 바쁘기 때문에 전체 교인에게 강단에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잘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인들의 삶의 정황은 서로 너무나 다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힘들어 한다. 그래서 일대일로, 맞춤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절실한 것 같다. 이것이 요즘 심방을 다니면서 더 배우게 되는 목회의 지혜다. 물론 심방을 원치 않는 이들도 제법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이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찾아와주는 목회자에 대해 고마워한다. 교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구리 쿡 찌르듯 일깨워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교인들을 보면서 종종 목회의 보람을 경험한다.

넛지 효과는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도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고립된 이민목회의 현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적절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방향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이가 있는 목회자는 행복하다. 언젠가 교회연합사역을 하며 지친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 교회일로도 바쁜데 연합사역까지 하니 그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곤고한 마음이 들었었다. 그런데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나의 사정을 눈치챘는지 나를 격려하느라 애를 썼다. 내 대신 분주히 뛰어다니기도 했다. 그들을 대하면서 사랑받는다는 생각에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약간 그 사랑을 즐기기도 하였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몸도 마음도 추스르고 다시 사역에 힘을 냈던 즐거운 기억이 난다. 지친 나를 옆구리 가볍게 쿡 찔러서 용기를 내게 도와준 것이다. 내 옆구리를 쿡 찔러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잠언의 말씀이 생각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18:1).

하나님은 누구든 추적하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CT, 은행강도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별난 사랑 이야기 소개

숀 호프우드(Shon Hopwood)는 전 은행 강도였다. 농구선수로서도, 대학 입학에서도 좌절한 그는 시간에 비해 거의 엄청난 불로소득 즉 은행 강도짓이 가져다주는 씀씀이가 헤픈 삶의 방식에 젖어 5번이나 은행을 털게 된다. 그러나 그는 교도소에서 법률도서관 일과 짝사랑했던 여인과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게 된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이처럼 하나님이 은행 강도였던 숀을 끝까지 추격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킨 은혜를 소개했다(God's Hot Pursuit of an Armed Bank Robber: After I surrendered to the FBI, I surrounded to the Holy Spirit).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내게 남겨준 것이라고는 엄청난 불행과 완전한 실패밖에 없음을 깨달은 처절한 성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09년 여름, 나는 연방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어리석은 청년 시절에 다섯 번이나 무장 은행 강도짓을 벌인 끝에 11년 가까이를 복역하고 나서였다. 출소 직후 내 삶의 전부인 애니와 동거를 시작했고 2주 후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리고 다시 1주 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서른다섯 살에 남편과 아버지가 돼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궁핍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었다.

내가 네브래스카 변두리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실에 당황할 독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선수의 꿈이 좌절되고 대학 입학과 입대마저도 실패하자 나는 삶의 모든 목적을 상실한 채 중독과 우울증에 빠져 살았다. 그때 나처럼 방황하던 한 친구가 은행을 털자고 했고, 나는 그 제안을 암울한 내 생활에 대한 보상쯤으로 여겼다.

우리는 은행 다섯 군데를 털었고 총기로 무장한 채 행원과 고객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때 나는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쉽게 벌 수 있는 돈과 그 돈으로 즐길 수 있는 파티를 포기할 수 없었다. 불로소득으로 유흥을 즐기던 내 생활은 오마하 더블트리 호텔 로비에서 연방수사관을 맞닥뜨리기 전까지 계속됐다. 1년 뒤에 나는 후들거리는 두 다리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연방판사 앞에 서게 됐고, 12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스물세 살 때였다.

감옥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소소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다. 나는 동료 재소자들에게서 벗어나려고 교도소 법률도서관에서 일하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책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복잡한 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동료 재소자들의 상고신청서 작성을 전담했다. 내가 써준 상고신청서는 전국 각지의 연방법원, 심지어 연방대법원에도 전달됐다.

연방대법원이 재소자가 요청한 사법심사를 허가할 가능성은 0.01%보다 적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동료 재소자들을 위해 내가 준비해준 두 건의 상고신청서를 승인했고, 우리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 뒤로 동료 재소자들은 나를 '재소자들의 변호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은혜가 찾아왔다. 애니... 고등학교 시절 내내 짝사랑했던 그녀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수백 통이 넘는 편지와 전화, 면회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연인이 됐다.

나 같은 자식이라면 내팽개쳐버릴 부모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부모님은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셨다. 어머니는 신앙서적을 계속 보내주셨다. 그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보내 주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잊지 않으셨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지만, 동료 재소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다.

아침이면 나는 옆방의 로버트를 찾아가곤 했다. 그는 비폭력 마약사범으로 20년을 복역하고 있었다. 우리는 인스턴트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커피는 물에 톱밥가루를 탄 것처럼 늘 썼지만 말이다. 로버트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지 못했고 아내가 20년 동안이나 혼자서 힘들게 가정을 꾸려왔다며 늘 투덜거렸다. 이런 투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로버트는 자기를 배신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재판 받을 때 정부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떠벌리기도 했다. 로버트는 그 친구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생과 감옥의 쓴 뿌리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여느 때처럼 로버트를 찾아갔고, 그는 미소를 띤 채 노래를 부르면서 바닥을 쓸고 있었다. 처음엔 그가 마약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평소와 다른 것 같다고 묻자 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대답이 돌아왔다. "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 며칠 지나지 않아 로버트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친구를 용서했다. 로버트는 현재 가족과 함께 농장에서 살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에서 남자 재소자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 마티는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마티의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귀에 들어왔다. 마티가 말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도 용서하셨어."
>
> 구원 받는다는 것이 내겐 어떤 의미일까? 은행을 다섯 군데나 털고서도 구원 받겠다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원 받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정] 편집상의 실수로 본지 제 1479호 2면 "부활절 특집설교" 마지막 부분이 누락됐기에 첨가 게재합니다. 설교는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의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고후4:7-15)입니다. 필자와 독자 여러분의 해량 바랍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소개
1.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 입니다.
2.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 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3.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사셨네! 한 곳에 모여 주님 찬양

〈1면에서 계속〉

이날 설교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28:1-10)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한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원하신 것은 첫째 절망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둘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며, "부활절을 기점으로 낙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관계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선교에 앞장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민경엽 목사가 '대한민국 진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이호우 목사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회복을 위해', 김기동 목사가 '한국의 정치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오아론 목사가 '이민교회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민승기 목사가 '다음세대의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특별기도를 인도했으며 남가주빛내리교회 중창단이 헌금송을 불렀다.

이날 예배는 연합찬양으로 헨델의 할렐루야를 부른 뒤 박용덕 목사(OC교협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모아진 헌금은 불우이웃 청소년 장학기금으로 사용된다.

사우스베이

한편 제 30회 사우스베이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병용 목사) 주관으로 새벽 5시30분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김현수 목사(토랜스선한목자교회) 사회로 구진모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가 대표 기도했으며 연합성가대의 "할렐루야"(지휘: 김승엽 목사) 찬양 후 김병용 목사가 설교했다.

김병용 목사는 고린도전서 15장 12-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은 절망과 낙심에 차 있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의 약속을 지키셨다.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특별 기도순서에서 김관중 목사(벧엘장로교회), 이화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 윤석형 목사(산샘교회)가 각각 특별 기도를 했으며 사우스베일목사회 회원 목회자들이 특송하고, 이기홍 목사(사우스베이선교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10면으로 게속〉

읽어야하는 성경...

〈1면에서 계속〉

스크린에 밀려 인쇄 매체인 성경을 읽지 않는 세대들을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스크린을 통해 읽게 하는 것이다.

최근 성경은 점점 더 스마트폰 앱이나 TV 프라임타임 대에 등장했고, 많은 미국인들이 이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만 26%의 미국인들이 성경을 더 자주 읽게 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성경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에 다운로드했기 때문이다. 또한 12%는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 실황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중계하거나 송출하고 있기에 성경을 점점 더 읽게 됐다고 응답한다. 그리고 11%는 케이블 TV를 통해 성경 이야기 등을 시청하고 있기에 성경을 자주 읽게 된다고 응답했다.

최근 수년 동안 스마트폰과 테블릿을 통한 성경 검색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 2011년 18%에서 올해는 35%로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했다

5. 삶의 해답이나 평안 위해 성경 읽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읽고 있지만, 그 비율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에는 64%, 2014년에는 56%로 감소했을 정도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읽고 싶어 한다. 바로 33%는 성경을 통해 삶의 해답이나 평안을 얻기 위한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2011년 26%).

특히 밀레니엄들은 성경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 자녀양육, 재정, 직장, 윤리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로 응용 가능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 따라서 밀레니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가를 교회공동체가 가르쳐야 한다.

6. 성경 읽기 부족이 미국사회 도덕적 타락 원인은 아니다.

10명의 성인 중 8명은 미국의 도덕과 가치들이 점점 더 타락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원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2013년 설문 결과와 대조해보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화, 음악 그리고 TV의 내용들이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너무 적다고 답한 이들은 성인 중 50%가 응답한 반면, 밀레니엄 중에서는 30%만이 응답했다.

결론으로, 미국성서공회의 로이 피터슨은 "앞으로 성경을 읽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그 이유로 "젊은층이나 노년층이나, 미국 성인들은 미국 내 도덕적 쇠퇴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쇠퇴를 막고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책자로서의 성경을 그들이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전화 인터뷰와 온라인 설문으로 2014년 1월 8일부터 20일까지 미전역에서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조사한 결과로, 신되도 95%, 오차율 +/_ 3%다.

〈2면에서 계속〉

이처럼 완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재소자는 로버트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많은 재소자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은혜가 모든 사람을, 심지어 재소자들을, 아니 어쩌면 특별히 재소자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말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을 합당한 근거를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

2009년 4월, 불황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나는 출소했다. 같이 복역했던 어떤 재소자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출소 후 몇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 오마하 대법원에서 문서복사 담당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변호사들의 업무를 도왔다.

일자리를 얻고 나서 애니와 약혼을 했고 우리는 친구 마티 반하트에게 주례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 복된 친구, 마티는 우리가 결혼 준비 상담을 마쳐야 주례를 해주겠다고 선언했다.

첫 상담시간은 한마디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 마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마티는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마티의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귀에 들어왔다. 마티가 말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도 용서하셨어."

다음 날 나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나를 설득하고 계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의 고집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의 구원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구원 받는다는 것이 내겐 어떤 의미일까? 은행을 다섯 군데나 털고서도 구원 받겠다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원 받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1:7-8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물론 한때 죄수였던 나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그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실패나 잘못으로 규정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규정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기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근 5년이 지났다. 애니와 나는 결혼을 했고 그녀도 그리스도인이 됐다. 우리는 오마하에 있는 교회(Christ Community Church)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아들을 낳았고, 내가 복역하고 있을 때 오랜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믿음의 선진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마크라는 이름을 붙였다. 몇 년 뒤 우리는 딸을 낳았고 자연스럽게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우리는 네브래스카에서 시애틀로 이사했고, 나는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전액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 기간에 나는 미국의 수형 인구를 줄이는 일에 자원해 봉사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똑같이 재소자들도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 109편 : 나의 이웃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재산

원만한 대인관계는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게 하는 큰 재산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인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하는데 있어서 말의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본문의 다윗처럼 거짓된 말로 공격을 당할 때 이러한 경우를 만나면 우리도 상대방에게 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속에서는 독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보다는 참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상대방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자체가 악이요 죄요 불행케 하는 독소입니다. 분노와 미움이 나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분이 나고 증오가 생기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 하는데 기름을 부으면서 불을 끄리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물을 부어야 된다는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17절을 통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화를 내면 그 화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우리 속에서부터 붙어 우리 자신부터 먼저 피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주하려면 마음에 독을 품어야 되고 저주할 정도로 강한 힘이 생기려면 속에 그것이 압축되어야 그 다음에 대담하게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압축된 저주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18절에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에, 자기 마음에 물같이 독이 퍼지고 뼈에 스며들며, 자기 온 육체에 독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의 것을 감정적으로 토해내면 오히려 자신에게 큰 화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화를 내면 그것이 자신에게 다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작은 화를 관리하지 못해서 나중에 큰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주님!'이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에 물을 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이 어두움을 다스려 줍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화를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비뚤어지고, 육체에 병이 생기고 대인 관계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됩니다.

화는 시작될 때, 마음속에서 불씨가 일어날 때 그것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묵과해 버려야합니다. 화를 죽이려면 관심을 그쪽에 두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두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잠언말씀 중에 아주 귀한 지혜가 있는데, 나무가 불에 탈 때 거기에다가 나무를 대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불이 다 타면 그냥 꺼지기 때문이지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잠26:20)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자꾸 대주니까 더 많이 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먼저 화근을 꺼버리고 대인관계에서도 그것을 먼저 꺼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살리지 말고 꺼버리고 또 이 불이 이쪽저쪽으로 옮기는 일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전달하되 이 집의 불을 저 집으로 가져다주어서 그 집을 불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 복을, 평안을,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집에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화평케 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대인관계를 복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Bethesda University 베데스다대학교

Music Department(음악학부)

대학(B.A),대학원(M.A)과정
교회 문화 사역 및 전문 연주자를 양성하는 베데스다 음악과! (*높은 취업률*)

클래식
피아노/ 오르간/반주법
성악/ 관현악/ 작곡/ 지휘

찬양사역&실용음악
키보드/ 보컬/ 드럼/ 기타
베이스/ 색소폰
뮤지컬/ 음악치료
영화음악/ 컴퓨터음악

장학금혜택
성혜장학금/ 그레이스장학금/ 성적장학금/ 격려장학금 등

학교 Application Process
신/편입생 모집(가을학기) 기간 :
미국 현지 지원자: 2014년 8월 8일 까지
해외 유학생 지원자: 2014년 6월 30일까지

입학 관련 서류: www.buc.edu /Admission
문의사항: admission@buc.edu
Main Office: 714-517-1945, Fax: 714-683-1440
Music Office: 714-683-1210
730 N Euclid St., Anaheim CA92801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용서하고 화해하고

최용덕씨는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의견차이로 언쟁을 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관계가 멀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성령님이 이 사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 그날 밤 친구를 찾아가 먼저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그 친구와 함께 노래를 만들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라는 곡이다.

한 집에서 한 솥밥 먹고 살면서도 원수처럼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는 친한 척 하지만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 관계가 있다. 사람들 가운데는 화해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해서 "불편한 진실"을 가슴에 품은 채 지내는 관계가 많다.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관계인데도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불편한 진실 관계에 있지 않았는가? 두 사람은 겉으로는 친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며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문제의 책임이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야곱은 이런 '불편한 진실'관계를 청산하려고 라반 모르게 야간도주했다. 이제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선악간 말하지 말라" 즉,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고 명하신다. 야곱이 미웠지만 라반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에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니 상황이 제대로 보인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야곱은 적대시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내 사위이며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야곱에게 속한 것, 즉 야곱의 아내는 라반의 딸들이며 야곱의 자식들은 라반의 손자들이었고 야곱의 양 떼들도 모두 라반이 약속대로 품삯으로 준 것이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이 가족 개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라반은 서로 언약을 세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다. 야곱도 갈등을 이 시점에서 멈추고 싶었던 터라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즉시 돌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큰 돌무더기를 세운다. 그들이 돌무더기를 다 만들어놓고 '먹었더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온전히 화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유없이 가끔 토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고 육체적으로 이무런 이상이 없는데 손과 발이 자주 저리고 마비되는 사람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병이 되어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암세포가 꾸준히 생성되기도 하고 신경통, 위계양이 생기고 또 밥만 먹으면 이유없이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용서프로젝트'의 설립자인 Pred Ruskin 박사는 수년 동안 심리학과 의학을 접목시킨 연구를 바탕으로 "용서"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했다.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한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 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랬다.

세상 살다보면 우리는 독한 화살에 맞을 때가 있다.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긴 사람이 있다. 친구에게 돈을 사기 당한 사람이 있다. 심한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다. 집단 따돌림을 받은 사람이 있다. 모두 다 화살을 맞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때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놈이 화살을 쏘았어. 그 놈이 내게 활을 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원수를 찾아다닌다. 원수를 그 독과 함께 품고 사는 것이다. 결국 자기가 죽고 만다.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나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흐트러졌던 인격을 가다듬어주는 위대한 힘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도 있다. 복음의 내용이 용서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용서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고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고 나면 어긋나있는 나무토막만 남을 것이다.

우리 모두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건강하게 장수하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푸/ 른/ 초/ 장

이성현 목사
(드림교회)

예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1-8)

인생의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바른 생각과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허비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목표와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치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본문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인 예수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 자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너희가 포도나무요'하지 않고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백성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아 너희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더 이상 너희가 포도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아예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좋은 포도나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거기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인생의 한계상황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주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삼아서 우리의 실패를 얼마든지 성공으로 바꾸어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영적인 능력을 잃고 방황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거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간 반드시 유혹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 없이는 단 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느 정도 친밀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붙어있는 친밀한 관계보다는 자신이 노력하는 것, 자신이 뭔가 하는 것에 더 익숙해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보다는 열매를 맺기 위해 무언가 하는 것에 우리 모두는 더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해야만 안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무엇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평안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익숙해 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서있지 말고 뭔가 해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질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립보 4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 붙어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숨결과 생명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낼 때 그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면서도 원수는 고사하고 옆에 있는 교우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지 못하구요, 주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그 은밀한 죄는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축복됨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 마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삶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분을 생각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뉴욕 새교회는 본 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I. 지원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목회자중 미국 개혁교회 교단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고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젼을 갖으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II. 제출 서류
1. 이력서 (소정 양식)
2. 자기 소개서 (소정 양식)
3. 목회 계획서 (소정 양식)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5. 최근 설교 DVD (2개) 나 또는 설교를 들을수 있는 home page 주소

III. 제출 마감일: 2014년 5월 31일

IV. 제출처
Pastoral Search Committee, The New Church of the Greater New York,
1 Willow Street, Roslyn Heights, NY 11577
• 문의: 청빙위원장 (황달연 장로)
917-576-3921, dalehwang100@gmail.com

V. 기 타
1. 서류는 보완유지 및 분실예방을 위하여 등기 우편 (FedEx, UPS) 으로만 받음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음
4. 소정 양식은 뉴욕 새교회의 home page (www.newchurchny.org) 에서 볼수 있음.

2014년 3월 28일

뉴욕 새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오바마케어의 대안책(하)

빛좋은 개살구 오바마케어 울며겨자먹기 식 가입
기독상조의료(CMM), 메디컬/메디케이드로 해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확산된 메디컬과 Christian Medi-Share로 대치!

4월 첫주 현재 겨우 7.1밀리언들만 가입을 한 상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월말까지 오바마케어보험(Affordable Care Act)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국정부가 인정하는 건강보험이나 또는 건강플랜에 가입할 때까지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에 위반되는 오바마케어는 가입하고 싶지 않지만 가입 안하면 어마한 벌금을 매달 계속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하거니 또는 이미 오바마케어를 들었으나 다른 옵션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안책 2가지를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미 오바마케어에 드신 분들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Obama HealthCare)는 비록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연령·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들을 소개했지만, 그런 화려한 약속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버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은 점점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일부의 의사들과 보험회사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마저 정부와 오바마에게 그들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마마케어는 크리스천들과 기독교 기업인들에게는 더 큰 거부반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Hobby Lobby같이 잘 알려진 큰 크래프트 스토어 체인점인 경우는 하루에 13억 달러씩 매일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가 자신들의 신앙을 위배하기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Hobby Lobby뿐 아니라 여럿 기독교 기업들과 기독교 학교들이 오바마케어에 소송을 걸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게 되면 내가 낸 세금과 가입비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인 태아들을 무참히 죽이는데 사용되어지고, 가장 많은 낙태를 실행하는 Planned Parenthood에 자동적으로 내가 낸 세금과 가입비의 일부분이 후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병원기록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매우 개인적인 모든 정보들을 앞으로 정부 IRS에서 국민의 개인 살림까지 다 조정하게끔 되는 게 깨어있는 국민들의 언성입니다.

첫 번째 대안책 Christian Mutual Medi-Share(CMM-기독상조의료)

TVNEXT에서는 미국기독교 단체들이 이미 30여년간 기독교인들을 섬겨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y(CHM)에서 한인들만을 위해 나온 Christian Mutual Medi-Share(CMM)를 소개합니다. CHM과 같은 깊은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위해 사역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CMM(기독의료상조회)는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오바마케어를 들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단 하나뿐인 의료프로그램이기에 벌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CMM에 가입해서 가장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은 건강하시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나, 특별히 크게 건강보험이 필요 없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들게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오바마케어를 들 필요 없이, CMM에서 훨씬 저렴하게 들 수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CMM에서 가장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CMM에 가입하셔도 오바마케어와 큰 차이를 못 느끼거나, 또는 CMM에 해당되지 않을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CMM에 가입하고 난 후에 병이 생기면 거의 다 커버가 되지만, CMM에 가입하기 전에 아팠던 병들은 100% 커버가 되지 않고 병명에 따라서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바마케어나 Health Insurance는 우리가 낸 돈의 반 이상이 보험비로 빠지고, 정작 우리치료비로 사용되는 것은 20-30%밖에 안되기에 늘 병원비가 비쌉니다. 그러나 CMM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나눠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경비의 대부분은 우리 병원 치료비로만 들기 때문에 병원비는 자연스럽게 더 저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대안책 메디컬(Medical) 또는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컬은 캘리포니아에서만 부르는 명칭으로, 본래는 메디케이드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메디케이드로 알려져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컬(Medical)"로 통합니다.

메디컬은 오바마케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연방정부 보조프로그램으로서 1)크리스천들의 신앙에 위반되지 않으며 2) 미국 연방정부 보조 의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들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메디컬(Medical)은 그동안 장애가 있거나,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무료 또는 약간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이었지만, 2014년 1월부터는 메디컬 연방빈곤선 기준을 138%에서 400%까지 확장시켰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장애자뿐 아니라 개인 소득이 연방빈곤선 기준의 138%에서 400% 사이에 해당하면 가족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도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컬 기본 의료보험보다 좀 더 좋은 의료보험을 들고 싶으면 메디컬 상품 안에서 약간의 가격을 내고 좀더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메디컬은 소득에 따라 연방빈곤선이 정해지고, 연방빈곤선 범주에 따라 연방보조 퍼센트지(percentage)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한 달 소득이 2480달러이면 연방정부빈곤선 133-150% 범주에 해당됩니다. 133에서 150%에 해당된다는 것은 연방정부 보조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 4%라는 것인데, 개인이 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하면 99달러이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족이 만일 실버(Silver)건강보험을 사고자 하면, 예를 들어, 병원비가 총 1200달러가 나왔다면, 99달러만 내면 연방정부에서 그 나머지 1,101달러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도 못 끼고 그렇다고 충분한 수입도 없었던, 중간에 있던 가정이나 개인들은 캘리포니아 메디컬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메디컬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면 각 지역에 있는 한인 쇼셜워커들을 찾아보거나 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에 문의하면 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는 정부기관입니다. 메디컬이 오바마케어는 아니지만 같은 미국 정부에서 나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Covered California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메디컬 가입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은 메디컬이나 지역에 있는 CMM에 연락해서 신앙도 위반하지 않고 각 가정과 개인에게 잘 맞는 건강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늘 설교에서 강조하지만 규칙적으로 잘 읽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경이 우리 집에 거의 10개 정도가 있지만 성경의 귀중성과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의 귀중성과 가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가데나 이 권사

A: 15세기에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직접 손으로 써서 복사해야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성경이 한 권 정도 있을 정도로 성경은 매우 귀했고 사람들은 낭독하는 성경말씀을 멀리서 귀를 기울여듣거나 벽난로 주위에 둘러앉아 성경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부유한 가정에 장식된 그림이나 스테인 글라스에 묘사된 성경의 사건을 그림으로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14세기 이후에야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일주일에 딱 한번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예배 때에 사제는 자신이 말씀을 읽고 강론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머리위로 높이 들어올립니다. 그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읽기" 해야

면 그 때에야 사람들은 성경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보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강단에서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말합니다(느8:5).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쇄술의 발전으로 성경을 너무나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한 집에서 몇 권이나 소유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물 같은 성경을 그냥 덮어만 두지 말고 펴서 읽어 성경의 보화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12:34-35).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쌓느냐에 따라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생각과 말이 바뀌려면 먼저 무엇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한 생각이 나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읽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묵상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우십시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책을 읽습니다. 정보와 즐거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습니다. 인터넷신문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만화나 스포츠 신문 흥미로운 블로그를 찾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 즉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성경이 정보도 주고 즐거움도 주기도 하나 성경을 읽는 진짜 이유는 성경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영적인 풍요로 채웁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읽기입니다.

새장로교회 임직예식 안내

새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과 같이 임직예식을 갖습니다.
참석하셔서 임직을 함께 축하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직자: (안수집사) 김민철
(시무권사) 정열자, 최옥자, 모옥화
● 일 시: 2014년 4월 27일(주일) 오후 4시
● 장 소: 새장로교회 본당

PRESBYTERIAN CHURCH (USA)

새장로교회
(담임목사: 원영호)

970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9
323-665-8643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최초로 설립된 클리블랜드한인장로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의 원로목사추대와 함께 은퇴하심으로 본 교회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1) 복음주의 보수 장로회 신학교(M.Div.)를 졸업하신 분
2) 이민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포함)되신 분
3) 미국 영주권 , 시민권자
4) 이중 언어(Korean and English)가 가능하신 분
5) 연령 40세-55세

2. 제출 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3) 목회 비전과 소명서 1부
3) 신학교 졸업증명서
4) 목사안수증명서
5) 추천서 목회자 2분
6) 최근 6개월 내 설교 2편(DVD : 동영상 파일)

3. 서류 제출처 Elder Sang Yong Lee(이상용장로-청빙위원장)
7976 Augusta Lane Concord, Ohio 44077
sylee54@yahoo.com

4. 제출기간 2014년 6월30일

5. 기타
1) 서류는 Email(선호함)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으로 제출하신 분은 필히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2014년 4월27일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청빙위원회 Pastoral Search Committee,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가나의 다곰바(Dagomba)

다곰바족은 가나 북부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인구를 가진 종족으로 다그본(Dagbon)이라 불리던 왕국을 수세기 전에 세웠으며 화이트 볼타강의 북쪽과 타말레의 북쪽에 있던 옌디(Yendi), 다곰바인의 수도를 지배했다. 1600년경 곤자족이 서쪽에서부터 화이트 볼타강을 건너 다그본을 침략하면서 다곰바족을 밀어붙이기 시작하자 이들은 수도를 함락당하고 옌디는 엔디다바리(Yendi Dabari) 곧 "몰락한 옌디"라 불리게 됐다.

그러나 1600년대 말 다곰바족은 동진해서 왕국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 마찬가지로 옌디라고 이름 붙였으며 토고 국경 근처의 타말레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1700년대 초에 다곰바족은 곤자족의 압력에 결속 저항해 그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했고 오늘날 강력한 종족으로 남아있다. 언어는 구르어족인 다그반어(Dagbani)를 쓰고 있다.

삶의 모습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땅이 황폐해 농경지는 5년 정도의 휴경 기간을 요한다. 이로 인해 농사를 짓기 위한 많은 땅을 여분으로 확보해 놓기 위해 마을의 규모는 비교적 작다. 마을의 가축들로부터 얻은 거름을 비료로 사용하면서 점차로 땅은 비옥해져서 1년작이 가능할 정도까지 됐으나 아직 삼림지역은 2-3년의 농경 후에는 휴경을 해야 한다. 특화작물인 참마(yam)를 비롯한 옥수수, 수수, 쌀, 땅콩, 콩 등 32종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은 농사에만 유능할 뿐 아니라 고기잡이, 사냥에도 능숙하며 일부는 관리나 행정직에 종사하기도 한다. 장인들은 재봉업, 상업 및 밧줄이나 돗자리 제조에 이름이 나있고, 대장장이, 정육업, 이용업 등의 전문업종 종사자도 있다. 부모들은 이러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어린 아들을 이들 상인들에게 보내고, 관찰과 실습을 거쳐 상거래도 배우면서 새로운 직종에서의 몫을 할 수 있게 된다.

다곰바족 사회에는 특별한 배열에 의해 마을이 형성돼있는데, 족장(마을의 최고령자)의 돔 모양의 오두막이 다른 가옥에 비해 크게 중앙에 위치하고, 다른 가옥들은 이곳을 바라보며 구획 짓거나 나눠진다. 각 지역은 우두머리나 지배적 전문직업인의 지역에 의해 특징지어지는데, 예를 들어 군인 지역이니, 정육업자 지역이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반인들은 마을 여기저기에서 원형이나 타원형의 오두막을 지어 살고 있으며 남녀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지배계급과 평민간의 실제적인 구분은 없다.

북을 치는 고수는 마을에서 단순한 음악가가 아닌 역사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익혀두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이들은 부자가 가업을 계승해 아버지로부터 민족과 왕국의 유래를 습득하게 된다.

신앙

절반 이상은 이슬람 신앙을 따르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온갖 종류의 영혼과 여러 신을 또한 믿고 있다. 각 마을은 각각의 조상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전체사회가 집단적으로 더 강력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마술을 행하기도 하며 저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도록 점쟁이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불"이라는 의미의 "분간(Bungan)"이라 불리는 이교도 축제를 벌임으로써 조상에게 경의를 표하는데, 대향연으로 시작해 공동체 밖에 있는 나무 근처에서 횃불을 들고 함께 모이면 축제는 절정에 달하게 되고 조상의 이름을 읊조리고는 횃불을 나무에 던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몇몇 선교단체들이 사역하고 있으며 약간의 복음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다곰바족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극히 미미함을 보이고 있어 복음의 권능 앞에 굴복하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와 중보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청년 서퍼 · 소년 가수 신앙스토리 '감동'

'불굴의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한 시각 장애인 2명이 최근 미국 언론에 잇따라 소개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매체 가스펠헤럴드는 브라질 출신의 시각장애 서퍼(surfer) 데릭 라벨로(22)가 다음달 미국 아이다호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 등에서 자서전적 영화 '비욘드 사이트'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라벨로는 2012년 교회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서핑 전지훈련을 왔다 감독에 발탁돼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파도타기를 하는 서퍼가 될 운명이었다. 부친은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 미국 전설의 서퍼 데릭호에서 아들의 이름을 따 왔다. 아이가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꿈을 잃지 않았고 아들이 17살이 되던 해 본격적인 서핑 훈련을 시작했다. 라벨로의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데뷔 3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서핑 코스로 꼽히는 미국 하와이 오아후섬 노스쇼의 파이프라인에서 서핑을 성공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11차례 월드 챔피언에 오른 서퍼 켈리 슬레이트는 "두 눈이 멀쩡한 서퍼도 꺼리는 코스를 느낌으로 서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극찬했고 프로 서퍼 레어드 해밀턴도 "많은 프로선수들이 이 코스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쏟아지는 호평에도 라벨로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살아 계신다. 내가 서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라벨로와 공통분모를 지닌 자폐증 청소년 가수 크리스토퍼 더플리는 미국 매체 허핑턴포스트에 소개됐다. 미국 태생인 더플리는 지난달 중순 텍사스주 한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동영상 포털사이트 유튜브에 올라 10만2000여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는 어눌한 발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에 성도들이 큰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26주 500g도 못 미치는 미숙아로 태어난 더플리는 부모에게 버림 받고 고모의 집으로 입양됐다. 고모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다 자폐증까지 앓는 조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정성을 다해 길렀다. 더플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 고모는 그런 조카가 음악에 흥미를 보이는 것을 알고 피아노를 가르쳤다. 더플리는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그렇게 말문을 텄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앨범을 내고 미국의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고모 크리스틴은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듯 온 마음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더플리를 통해 배웠다"고 말했다.

둘의 사연을 접한 미국 네티즌들은 "모든 일에 불평만 하던 것이 부끄럽다"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다니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예배 중 머리 총알 박힌 케냐 아기 기적적 회복

이슬람 과격세력의 공격으로 예배 중 크게 다친 케냐의 18개월 된 남아가 시민단체와 정부의 도움으로 회복해 케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케냐 온라인매체 IQ4뉴스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새트린 오신야는 지난달 23일 케냐의 해안도시 몸바사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부모의 품에 안겨있다 두개골에 총알이 박혔다. 무장괴한이 쏜 총탄은 모친의 몸을 관통한 뒤 아이의 몸에 꽂혔다. 모친은 즉사했고 아이는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러나 집이 가난한데다 아이가 사는 지역에는 수술을 집도할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었다.

아이의 모친 등 성도 6명을 잃은 교회가 시름에 잠겼을 때 손을 내민 건 이웃이었다. 아프리카 민간 의료단체 AMREF는 오신야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나섰다. 아이는 수도 나이로비의 케냐타 국립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경외과의사 5명이 머리의 총탄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정부와 후원자들은 수술비를 댔다.

오신야는 지난 10일 퇴원했다. 아버지 벤슨 오신야씨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과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오신야가 알샤바브의 공격으로 가족을 잃은 케냐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는 케냐 군대가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 진압에 대한 보복으로 수년전부터 교회 등에 테러 공격을 일삼고 있다.

리버티대학, 동성애 옹호 안무가 고용 논란

세계 최대 보수 기독교 대학으로 꼽히는 미국의 리버티 대학이 예술학과에서 동성애 옹호 안무가를 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리버티 대학은 최근 발간한 학보에서 무대예술학과의 부설극단 '얼루비언 스테이지 컴퍼니(Alluvion Stage Company)'가 학생 참여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음악 감독, 안무가 등 예술 분야 전문가를 객원 단원으로 고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명단에 오른 뉴욕 브로드웨이 출신 안무가 제프리 골드버그(사진)가 평소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골드버그가 가장 최근 작업한 뮤지컬 '브래들리 콜'은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 또 그가 페이스북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동성결혼 지지 단체에 가입돼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얼루비언 스테이지 컴퍼니의 린다 넬 쿠퍼 예술 감독은 "우리는 골드버그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도 "채용할 때 개인적 신념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42번가와 그리스, 치티치티뱅뱅 등 유명 뮤지컬의 안무를 맡았던 실력을 인정해 골드버그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학교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런 가치를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극단이 성경 주제의 작품만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또 동성애자를 모든 분야에서 배제할 수 없지 않냐"는 주장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리버티 대학은 1971년 고 제리 폴웰 목사가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에 설립, 세계 최대의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으로 성장했다. 현재 학부생 1만2600여명, 온라인 수강생 9만여 명이 '주님의 일꾼을 기르자'란 신조 아래 재학 중이다.

투투 대주교 "중아공 대량학살 위기" 경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대량 학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21일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중아공 폭력사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고 기독교, 이슬람교도, 무신론자 등 갈등의 모든 당사자에게 "관용의 정신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을 호소했다.

투투 대주교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을 뿌릴 수 있다"면서 "그것은 강력한 승수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속가능한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바로 중아공 사람들이며 함께 살기 위한 재학습을 해야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5일 중아공 수도 방기를 방문, 20년 전 국제사회가 르완다에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르완다 대학살과 같은 사태가 이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중아공은 지난해 3월 이슬람 계열인 셀레카 반군그룹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뒤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자 기독교인들도 민병대를 결성해 보복에 나서면서 종파 간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캐서린 삼바-판자 대통령이 이끄는 과도정부가 출범했으나 기독교계 민병대의 이슬람교도에 대한 보복 살육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6천 명의 아프리카평화유지군(MISCA)과 2천 명의 프랑스 병력이 주둔하고 있지만 유혈사태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4년 5월 본교 강의안내

May 12-16(5월 12 -16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om Stallter

May 19-23(5월 19-23일)
DI 8280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PM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졸 업 식 안 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식 리허설(Graduation Rehearsal)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졸업식 장소
(졸업예정자는 전원 참석해야 하며 정장차림을 해야 함)

총장주관 졸업만찬(President's Luncheon)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12:00-1:30pm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ter Hall)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28)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총신대명예교수

도전과 응전(Ⅰ)-철도 대파업

노동당이 부추긴 철도 대파업, 3가지 법안제시로 막아
반철도파업법, 카이퍼내각을 최상의 봉사기관으로 세워

카이퍼 수상은 본래부터 신학자요 목회자였지만 그는 또한 정치전략가이기도 했다. 그러나 카이퍼가 수상으로서 3년째에 들어서는 1903년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그것은 바로 전국적인 철도 대파업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철도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시절 전국철도파업은 국가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란의 철도회사 경영진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대안도 없었다. 특히 화란 같은 작은 나라는 이 철도 대파업이 국가의 내분사태나 다름없었다.

필자는 여기서 당시 화란의 철도 대파업의 전후관계를 모두 설명할 필요는 없을듯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파업이 가지는 역사적 배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서구사회를 강타한 것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사상이었다. 이런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사상은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사회, 문화, 학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 마하일 바꾸닌(Michael Bakunin 1814-1876)이 그의 저서 "신과 국가"를 통해 무정부주의사상 사회주의사상을 고무, 찬양했다. 그의 망발은 기독교의 도전이었고 서구사회에 공산주의 혁명과 폭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는 기독교를 가장 악랄한 종교로 비꼬고, 기독교는 신의 유익을 위해 인간성을 빈곤케 한다고 역설하고 진정으로 무정부주의를 예찬했다.

물론 이런 시대적 환경은 당시 유럽에서 일어난 인본주의, 계몽주의 사상과 연결된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의 판단과 결정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진 자들과 정부를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당시 철도파업자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러한 폭력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가진 자들을 증오하도록 하는 사상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기름을 붓고 노동자의 시위와 파업을 부추기는 정치가는 화란의 변호사 출신의 뜨룰스트라(P.J.Troelstra)였다. 그는 25년 동안 사회 민주노동당의 지도자로 국회에서 일했다. 트룰스트라의 노동당은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서 있었다.

그 당은 경제의 사회화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노동당의 필요성을 선전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노동조합과 제휴해서 노동자들의 시위를 독려하고 지원했다. 트룰스트라와 노동당은 한술 더 떠서 정규군 패지, 산업과 운송의 국유화, 하루 8시간 노동제, 사고와 질병, 노인과 실업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전면 보험제실시를 주장했다. 트룰스트라는 국제노동운동과 연대를 표방했고 화란군주제를 혐오했다. 바꾸닌과 트룰스트라의 영향으로 화란의 노동자들은 뭉쳤고 카이퍼의 집권을 비판했다. 카이퍼와 트룰스트라는 일생동안 정치적 맞수이자 적대관계에 있었다.

카이퍼는 기독교 민주주의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원리로 정치하는 칼빈주의적 정치가였다. 그러나 트룰스트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 세계관을 통한 민중봉기의 기수였다. 그러므로 카이퍼가 수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그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바로 트룰스트라 의원이었다. 트룰스트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고무로 철도파업은 시작되었다. 철도파업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즉 카이퍼 내각에 흠집을 내고 겁박해서 진보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있었다.

물론 철도파업은 실제로 사소한데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철도가 아니고 수로(水路) 운수 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파업은 곧 해결되었으나 파업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는데, 새로운 파업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암스테르담 전 항구로 확산되었고 노조들은 화물 배들의 짐을 하역하지 않자, 회사는 철도회사의 노동자를 고용했다. 그런데 도리어 수로운수 노조와 철도 노조가 단합해서 파업을 시도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철도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파업은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가진 20-30명의 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자 사회주의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을 가진 노조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합세하고, 그 배후에 노동당의 트룰스트라 같은 정치 지도자가 배후조종을 하면서 무정부상태로 몰아가고 있었다. 화란은 수도가 헤그에 있었고 파업은 화란의 중심도시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었으나 보고채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카이퍼 수상은 이 사건은 혁명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의 소행임을 간파했다. 카이퍼는 국민군을 소집하고 폭도들에게 정부의 권위에 존경심을 심어주고 파업 때문에 혼돈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평화를 회복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새로운 파업이 일어나자 정부는 즉각 할 수 있는 대로 임시 철도운행을 정상화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암스테르담 요새를 강화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혁명 분자들에게는 강한 경고로 비추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 노조만이 아니었다. 난데없이 계급차별 타파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아 급수시설을 중단하려고 했고 덩달아서 마부들도 동맹파업을 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택시노조의 파업인 셈이다. 마부들이 동맹파업은 이렇다. 당시의 육로 교통기관인 마차가 정지되면 의사들이 왕진을 못할 것이고 빵가게와 밀가루 운반이 어려워졌다. 말하자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체제전복을 하자는 것이다. 카이퍼 정부로는 위기일발이었다.

그러나 카이퍼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다. 카이퍼는 어느 국민도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카이퍼는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 중에 폭도들은 고개를 쳐들고 무력사용을 하려고 했다. 한 마디로 법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카이퍼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카이퍼 수상은 하원에 나가서 웅장한 연설로 세 가지 법안을 제출했는데 모든 하원의원이 이를 환영했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 세 가지 법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정부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기차에 군인들을 배치함으로서 철도운행을 보호하기 위한 철도부대를 창설할 것

둘째는, 정당하다고 입증된 불만의 경우는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 그래서 정부위원회는 그들의 법적 지위와 근로조건을 조사해서 고용안전을 보장하고, 정부의 보호 아래서 올바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

셋째는, 실제로 위법한 것은 범죄로 간주하고, 정부는 노동자 자신의 직무를 버리면 엄벌에 처하고 다른 어떤 일터에서도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가르쳐 반(反)철도파업법(Anti-railroad Strike law)이라고 했다.

새로운 반 철도파업법은 대개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16면으로 계속〉

가정사역 칼럼

슬픔의 여정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언젠가 직면하게 될 상실과 슬픔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면 놀랄 것 입니다. 한국문화는 사별하신 분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잘 모릅니다. 주변에 사별의 고통을 겪은 무슨 말을 건네야할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야할지 잘 모르며, 사별가정을 돌보는 세미나나 정보도 턱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지금 한국은 모든 멈춰진 것 같은 국가적인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충격에 압도당하여 함께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며 허탈감, 비현실감이 밀려오고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슬픔은 눈물로 나타나고 가슴이 미어지고 미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으면 상실감과 슬픔 때로는 죄책감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 부인, 분노와 흥정, 우울감, 수용, 적응 등의 애도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대상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불특정한 누구 또는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애도의 과정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낸 시간과도 연관됩니다. 또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 슬픔의 여정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잃은 부모라도 아빠의 애도과정과 엄마의 애도과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즉각적일 수도,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갔다가 밀려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시하십시오. 때론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곧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지요.

애도의 과정 중 중요한 몇 가지는 첫째로,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정리해보십시오. 사별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만을 잃은 것 이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꿈,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 재정적 손실, 노동력,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기쁨 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편지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애도의 편지를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십시오. 때론 친지들의 선한 의도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낯설은 일이겠지만 근황을 묻는 분들을 위해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애도의 편지를 써서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마치 선교사님들 기도편지 같은 것). 왜냐하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도 사별가족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넷째로 또한 중요한 결정들은 뒤로 미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은 뇌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곧 분석적이고 뇌의 감정적인 부분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단기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허위위협과 실제 위협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한 느끼는 것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위험이 없는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처, 트라우마는 세월도 약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로 마음이 안정되고 정리되었을 때 고인의 물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아름다운 추억들을 간직하고, 떠나보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만라이트 박사가 쓴 '마음껏 슬퍼하라'(노란숲), 사별가정회복 모임 DVD를 참고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시34:18). 감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분들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부디 이러한 상실과 슬픔을 통해 우리들의 천국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강화되고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레위기의 깊고 푸른 진리의 숲을 거니는
소강석목사의 신학적 사색과 통찰!
유대 랍비들의 문화사적 배경,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교회론적 적용, 통전적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펼쳐가는 레위기 스토리텔링

예배, 복음,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신비롭고 놀라운 입체적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소강석

288면 / 11,000원

난해한 레위기를 정복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레위기 입문서!
이 한 권의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도 레위기의 산을 정복할 수 있다.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십자가를 체험하라
320면 / 12,000원

생명나무
503면 / 16,000원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닥다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84. 창조론의 기초(34) 왜 창세기의 역사를 타협하는가?

세속과학자 오류를 진리로 믿은 크리스천학자들의 잘못된 태도: ①창세기 1장 하루(욤)에 대한 재해석 ②창세기 족보를 설화로 치부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구 나이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세상 과학자들의 주장을 성경의 역사와 조화를 이루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를 말살하고 있다. 성경은 시작과 기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일을 한 때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역사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없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다. 첫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분이 거짓말하셨다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며 정확하다. 셋째로, 성경에 대한 연구와 과학적인 탐구결과들은 창세기가 써 있는 그대로의 역사임을 지지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창세기를 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세속과학자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창세기가 사실 역사라고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도 있지만 교회는 이상하게도 성경이 옳다는 창조과학자들의 말은 무시한다. 세속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주는 약 138억년 되었고 지구는 약 46억년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이 과연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분야의 과학적 주장인가?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과학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다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창조과학자와 세상과학자는 실험과학분야에서는 충돌하지 않는다.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찰이 불가능하고 실험이 불가능한 역사과학 분야에서는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증거나 자료를 해석하는 데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믿음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주장은 믿음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첫 단추다.

과거를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셨다는 믿음과 세속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역사가 사실이라는 믿음이다. 후자의 믿음은 매우 불안정하다. 과학교과서의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성경은 과거에 되어졌던 모든 것을 직접 행했고 보았던 증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

창조과학자들은 비록 그 수가 적어도 참 증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속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실험과학 내용을 다 알 뿐 아니라 세속과학자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과학의 내용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잘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조개나 물고기 같은 생생한 화석과 공룡과 같은 부서진 화석의 차이, 왜 중간화석이 없는지, 석탄이 왜 나무껍질로만 되어 있는지, 왜 육지의 75%이상이 지층으로 덮여있는지, 어떻게 수천 마일 길이의 지층이 수백마일 넓이로 생겨났는지, 그랜드캐년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물고기 화석과 지층의 휘어있는 모습, 왜 화산과 지진이 나는지, 지질시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화석들이 왜 진화론의 순서대로 발견되지 않고 뒤죽박죽 발견되는지, 캄브리아기 이전 층에는 화석이 전혀 없다가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화석이 폭발적으로 그것도 거의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이 발견되는지, 왜 같은 돌 속에서 분리한 미네랄들의 방사성연대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지, 왜 공룡의 탄소연대가 2억년이 아니라 2만년이 나오는지, 왜 고생대 중생 신생대 석탄의 연대가 동일하게 젊게 나오는지, 왜 대형동물들이 빙하시대가 아니라 빙하시대 이후에 멸종되는지, 인종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언어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며 어디로 가는지???

세속과학자들의 오류를 진리로 믿은 크리스천학자들이 한 일들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의 하루(히브리어로 욤)에 대한 재해석이었다. 맨 처음 지구가 창조되고 이어서 빛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밝은 부분을 낮(욤)이라 하셨고 어둔 부분을 밤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하루의 단위가 되었다. 이 하루의 단위는 태양이 존재하기도 전에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루어진 시간단위다. 지금도 이 하루라는 시간단위는 계속되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하루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지금의 하루임을 부정할 수 없도록 '저녁과 아침'까지 덧붙여 두셨다. 십계명에도 6일 동안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알려주는 '엿새(6 욤) 동안'이란 표현이 있다(출20:11).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이상 어떻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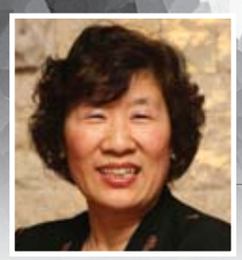
세속과학자들의 오류를 진리로 믿은 크리스천학자들이 한 일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의 족보를 설화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성경을 토대로 하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역사는 최소 1948년 최대 1985년으로 20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 기록은 창세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구와 우주의 역사는 6천여 년 뿐이다. 이 성경역사는 인류의 모든 문명이나 인구 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 정도, 지구 자기장, 달이 지구를 떠나고 있는 정도 등 객관적인 사실들과도 잘 어울린다.

세속과학자들의 오류를 진리로 믿은 크리스천학자들이 수억년과 진화론을 받아들여 창세기 1장을 꾸기고 찢어발겨 버렸다. 하루를 한 지질시대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이 들어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거나 진화의 순서로 직접 창조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만약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으신 것이고 그가 약속한대로 다시 오시지도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진화론과 마딱뜨리기 싫어 창세기는 사실역사기록이 아니라 알레고리나 신화라고 치부해버렸다. 창세기의 역사부분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는 모든 이론들은 다 세속과학자들의 오류를 진리로 믿어버린 속임수의 결과였다.

지금 교회는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과 매우 흡사한 것 같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대담하고, 복음의 능력은 없다. 교회와 복음의 기초인 창세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약한 자를 축복하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히 11:21). 속이고 속임 당하느라 이열치열의 일생으로 고달픈 세월을 자손들을 축복하며 마감하던 야곱이 지난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아내던 그 날을 떠올리며 지팡이에 의지하고 일생을 함께하며 구비구비 손때묻은 하나님 은혜를 가슴에 절절히 사기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찡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사모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고야마는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물건처럼 챙기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심중의 모든 생각을 점검하시어 하나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걸맞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우상 숭배하듯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사모하는 마음은 받으시고 평생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속임 당하여 마음이 많이 상하지만 진짜 손해 받은 것 별로 없이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 넘친 생애입니다.

형을 속여서 살자고 도망가느라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생이별하여 다시 못 뵈게 되고 뼈 빠지게 타향에서 고생하나 4명이나 아내들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 야곱나루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확인해내는 진액을 쏟고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입니다. 그래도 형이 두려워 많은 선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고 아끼는 라헬을 맨 뒤에 두고 맘 졸이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많은 세월 탓인가? 암튼 형 에서가 저를 따뜻이 맞아주니 그 마음에 얼마나 안도의 쉼을 쉬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을 지요!

편애하다 다른 아들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아 넘겨 요셉이 죽은 줄로 생각해 방성대곡하느라 녹던 가슴... 가뭄에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보내며 생명처럼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유일하게 남은 아이 막내 벤자민까지 잃을까 노심에 애태우던 그.... 본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마지막으로 자손들을 축복하며 구비구비 회상하니 어려운 고비 때마다 풍성히 도와주시고 손잡아주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생각이 나서 지팡이에 의지한 손이 떨리도록 주님을 감격하여 경배하는 야곱입니다.

야곱 못지않게 주신 힘든 이민 사모 삶 38년을 숨 가쁘게 살았습니다. 야곱만큼 오랜 세월 살진 못했지만 그간 목양 길에 생긴 일들을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라 함이 실감이 납니다. 아무리 머리 굴려도 인간 힘만으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험악한 형편만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케 하시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 은혜를 사모토록 주님의 해바라기되도록 시선 정리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가신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는 참으로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그 분만 사랑토록, 그 분의 심장만 닮도록 부스러기 털어내고 녹여내고 그 분의 심장으로 이식해 이식된 그 분의 심장이 내 안에서 건강히 일하기까지 충만한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대공사를 충성스레 정말로 조그마한 인간적인 이물질도 걸러내시고 녹여내시고 그 분의 사람답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편단심을 어찌 이길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내게 복주시기로 약속하심은 당장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해도 내가 물과 불을 통과한 후에, 나의 타는 목마름으로 은혜의 가치를 절감토록 이런 미친 상황들이 나의 거룩을 유지키 위한 방부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 연민으로 눈을 돌리는 내 마음을 꽉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나를 향한 뜻은 영원토록 최선임을 굳게 잡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자손들을 축복하며 경배하는 야곱의 이스라엘 된 그 모습으로 당신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은혜를 헤아리며 살리라고 주님 품안에 나를 안겨드립니다. 지명하여 당신의 것이라 부르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신 귀한 생을 감격이 넘치게 누리려고 해요. 은혜를 내 것으로 당신의 것을 내 것으로 충만토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은혜로 충만하소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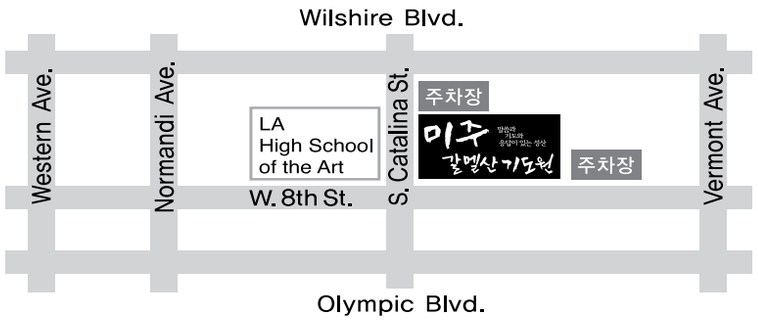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기간 2014년 4월 24일(목, 저녁) ~ 5월 8일(목, 저녁)
시간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한국 CBS. TV "세상을 이기는 지혜 – 솔로몬" 강의 (2013년 7·8월, 11·12월 방영)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강화 ·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GST(신학생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
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
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다시보기 : www.cbs.co.kr/tv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bssolomon
■ 트 위 터 : www.twitter.com/cbssolomon
■ 유 투 브 : www.youtube.com/cbssolomontv

2014년 월별 부흥성회 일정

4 April	5 May	6 June	7 July	8 August	9 September	10 October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1 2 3 4 5	1 2	1 2 3 4 5 6	1 2 3 4
6 7 8 9 10 11 12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20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1 22 23 24 25 26 27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25 26 27 28 29 30 31	29 30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목회서신

영육혼의 완전한 개혁은 '내가 먼저(I First)' 운동으로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모든 문제를 남에게 돌리는 "너 때문에(Because of You)"의 책임전가, 자기변명, 자기합리화로 만연한 한국 사회에 대하여, 한국의 천주교회에서 故 김수환 추기경이 주창한 "나 때문에(Because of Me)"의 운동은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2년 LA 남가주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기윤실)에서, "나부터(Start from Me)" 운동을 전개하므로, 기독교계가 정의사회구현을 위하여 앞장서게 됨에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가주 기윤실은 "나부터 사랑으로, 나부터 바르게(Love and Justice, Start from Me)"라는 표어와 함께 13가지 실천사항을 주창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각처에서 여러 분야에서 개혁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느 분야보다 먼저 개혁되어야하고, 이 모든 개혁운동을 앞장서서 주도해야 할 교계의 개혁은 일어나기는커녕 무사안일과 황금만능, 권위주의, 교단 교파주의 등으로 구태의연하게 세속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나 때문에(Because of Me)"와 "나부터(Start of Me)" 운동은 교계와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종의 사회정화, 사회정의구현,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오래가지 못했고, 교계와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사회정화, 사회정의구현, 사회개혁 운동과는 조금 다른 차원, 즉 기독교계 자체에 대한 영적인 개혁의 차원에서, "내가 먼저(I First)" 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운동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개개인이 혼적, 정신적 개혁과 함께 영적인 완전한 변화 가운데, 실천될 때 비로소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내가 먼저(I First) 운동의 13가지 실천사항"을 주창하며 선포합니다.

1. 내가 먼저 사랑하자(마5:44, 22:39).
2. 내가 먼저 용서하자(마18:35).
3. 내가 먼저 주라(눅6:38).
4. 내가 먼저 섬기라(마20:26-27).
5. 내가 먼저 구제하자(신15:10).
6. 내가 먼저 낮아지자(마23:12).
7. 내가 먼저 헌신하자(요12:24).
8. 내가 먼저 변화하자(롬12:2).
9. 내가 먼저 회개하자(마3:2, 7:5).
10.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자(마7:12, 눅6:31).
11. 내가 먼저 소금과 빛이 되자(마5:13-14).
12.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고후2:15).
13. 내가 먼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살전5:16-18).

"내가 먼저"의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려면? (1)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해야 합니다(마16:24, 눅14:33), (2)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롬8:17), (3)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셔야 합니다(갈2:20), (4)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요14:16-17, 롬8:14)).

2014년 미주한인교단 총회일정

4월21일 C&MA/미주성결교회-6월23일 미주남침례회

미주내 한인교단들의 2014년 정기총회가 시작된다. 4월 21일 C&MA와 미주성결교회를 시작으로 6월 23일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까지 미주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미주한인교단의 총회일정은 다음과 같다.

〈박준호 기자〉

[2014년도 상반기 미주한인교단 총회일정]

교 단	날 짜	장 소	문 의
C&MA한인총회	4/21-24	〈GA〉Hyatt Place	(201)750-6750
미주 성결교회	4/21-25	〈Canada〉토론토 벧엘교회	(416)675-1234
연합감리교회한인총회	4/28- 5/1	〈NY〉Islandia Marriot Long Island Hotel	Korean.association.umc@gmail.com
기감미주특별연회	5/6-8	〈IL〉Holiday Inn Chicago North Shore	(800)972 2494
해외한인장로회	5/13-15	〈CA〉홀러톤 장로교회	(714)446-9010
예장미주합동총회	5/18-23	〈CA〉예수커뮤니티교회	(714)739-919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5/20-23	〈Canada〉Toronto Airport Marriott Hotel	(416)674-9400
재미 한인 예장고신 총회	6/16-19	〈IL〉시카고 여수룬 교회	(847)878-9699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6/23-26	〈DC〉 힐튼호텔	(972)221-8026

OC목사회 주최 제1회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OC목회자들, 정체성 회복위해 기도의 불 지펴

오렌지카운티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모여 영적 각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 이하 OC목사회)가 12일 오전 7시 스탠턴에 위치한 남원골 추어탕 식당에서 제1회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원로 목회자와 젊은 목회자들 50여명이 한 자리 모여 모처럼 오렌지카운티 목회자연합 회개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 및 사모들은 △한국과 미국, 북한을 위해 △OC교회와 영적지도자들을 위해 △OC목사회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합심 기도했다.

곽재필 목사(수석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조찬 기도회는 이갈렙 목사의 찬양과 김기동 목사(오렌지카운티교협 부회장)의 대표기도 후, '천륜'(사1:1-4)이란 제목으로 최승구 목사(원로목사회)의 말씀이 있었으며 박용일 목사(부회장)의 마무리 기도, 박상목 목사(자문위원)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영찬 목사는 "OC목사회 정체성을 '기도하는 목사회'로 정하고, 앞으로 기도의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도록 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오렌지카운티 한인상담소와 루터복음교회를 담임하는 문현봉 목사와 '아버지학교'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주창국 장로가 봉사상을 수여 받았다.

앞으로 OC목사회는 정체성 회복하는 차원에서 월 1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은혜한인교회 세계기도센터에서 기도운동을 펼치고 △한국과 북한, 탈북자 △미국의 정체성 회복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기도에 힘쓰게 된다.

〈기사제공: OC 목사회〉

LA언약교회에서 열린 제80회 예장 미주서부노회를 마치고 노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새 노회장 나정기 목사, 부노회장 임용호 목사

예장 미주합동총회 미주서부노회 제80회 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총회장 신청기 목사) 미주서부노회(이하 서부노회 노회장 강평근 목사) 제80회 정기노회가 14일 오전 10시 LA언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에서 열려 신임노회장에 나정기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나정기 노회장은 "사도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다. 우리 서부노회는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노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 등이 죽어지고 예수의 정신만이 남는 노회,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노회가 됐으면 한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날 노회는 나정기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시작해 회록서기 전용성 목사의 기도 후, 노회장 강평근 목사가 '지극히 작은 자'(단1:6-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고귀남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성찬예식은 박재웅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박중규 목사가 기도를, 박재웅 목사가 '나를 기념하라'(고전11:23-2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회의 회무절차에서 임원선거가 있었으며 폐회예배는 신임 노회장 나정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다음은 신임 임원 명단.

△노회장: 나정기 목사 △부노회장: 임용호 목사, 장로부회장: 문용장로 △서기: 김성지 목사 △부서기: 전용천 목사 △회록서기: 하재식 목사 △회록부서기: 이동규 목사 △회계: 고귀남 목사 △부회계: 김경열 목사.

〈박준호 기자〉

제45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샌안토니오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

KIM미션 제45기 미션퍼스펙티브스

샌안토니오 지역 첫 세미나 수료

KIM(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미션(대표 바나바스김 선교사, 이사장 임이근 장로, 스페인 라스팔마스)이 진행하고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담임 박한덕 목사)가 주최한 제45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샌안토니오 세미나가 성료됐다.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 세미나는 지난 3월 28-30일과 4월 4-6일 두 주간 주말 3일씩 총6일간 진행됐으며 73명이 수료했다.

지난 2002년 봄부터 13년째 이 선교세미나를 진행해온 킴미션 대표 바나바스김 선교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텍사스를 비롯한 미드웨스트 지역으로 이 세미나 보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나바스김 목사는 미 육군 예비군 군목(Chaplain)으로 현재 샌안토니오에 소재한 미국3군 통합병원 (SAMMC)에서 1년간 병원군목 레지던트 과정을 연수중이다.

이 퍼스펙티브스 세미나(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는 1970년대 후반 랄프 윈터 박사(Ralph Winter)에 의해 캘리포니아 패사디나에 미국세계선교본부(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한 후 시작된 선교세미나로 전 세계 영어권에서 약12만 명 이상이 수료했다.

바나바스김 목사는 1997년 선교사 훈련차 패사디나에 들렀다가 이 세미나를 처음 들은 이후 그가 12년간 소속해있던 국제오엠선교회(OM) 선교선 둘로스호를 승선, 3년간 사역했으며, 선교현장 사역 종료 후인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국제오엠미주한인본부(OM KAM) 대표로 사역하면서 이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미주한인사회에 보급해왔다.

이번 제45기 샌안토니오 세미나 주강사는 KIM미션 대표 바나바스김 선교사와 김문신 장로(볼티모어 수료자), 최도문 박사(치과의사, 피닉스 수료자)가 맡았다.

KIM미션은 13년간 이어온 이 세미나에 대한 노하우와 축적된 선교현장 경험 및 풍성하고 생생한 지식과 자료들을 통해 미주 소도시 한인교회들까지 이 세미나를 보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KIM Mission은 그가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를 수료한 3700여명의 수료자들 가운데 헌신된 지역교회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2009년에 설립한 세미나 보급 전문단체이다.

▲문의: www.KIMMission.org 전화 (626)354-2294

〈기사제공: 킴미션〉

APU 신학대학원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로상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다니엘 뉴먼 한인목회학박사프로그램 디렉터, 정해진 목사, 강준민 목사, 그리고 변명혜 한인 석사과정 프로그램 디렉터, 최장식 목사가 공로상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APU신학대 30주년 기념 동문공로상 수여

강준민, 이기복, 정해진, 최장식 목사 수상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월레스 박사)가 신학대학교(학장 스캇 다니엘 박사) 3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본교 웨스트캠퍼스에 위치한 헤리티지 카페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APU동문공로상 시상식은 한인프로그램, 히스패닉 프로그램, 기독교교육, 샌디에고 센터, 목회학박사과정 프로그램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한인프로그램출신으로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이기복 감독(대전하늘문교회), 정해진 목사(남가주명성교회), 최장식 목사(APU한인총동문회 직전회장)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강준민 목사는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저술활동으로, 정해진 목사는 남가주교협회장, KPCA 총회장 등 한인교계를 위해 활동한 점으로, 최장식 목사는 APU한인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돼 이날 시상을 했으며 이기복 감독은 한국에서 공로상수상을 했다.

한편 이날 오후1시부터 The Saint John's Bible: Theology, Art, and Imagination이란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2시에는 The Importance of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Wesleyan Holiness Tradition 이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오후 6시부터 본교 이스트캠퍼스 내 Upper Turner Campus Center에서 저녁만찬행사가 열렸다.

〈박준호 기자〉

제30회 HYM청년연합집회 5월 3, 4일

장소 선한목자장로교회, 강사 다니엘뉴먼 목사

HYM(남가주청년연합회 대표 더글러스김)이 주최하는 제30회 HYM 청년연합집회가 5월3일(토)과 4일(주) 양일간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열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마3:2-3)는 주제로 열리는 HYM 집회는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본교 한인목회학박사과정 디렉터이며 최근까지 1.5세 사역을 펼쳐온 다니엘뉴먼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이 시대 남가주지역 청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더글러스김 대표는 "이번에 주제로 정한 마태복음 3장 2절 3절 말씀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며 "이번 집회를 통해 예수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남가주 청년들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많은 청년들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이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HYM 연합찬양팀의 반주자로 참여한 이지수 자매는 "청년들이 HYM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드럼연주자 국중현 형제는 "미국에 온지 2년밖에 안돼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있는지 몰랐다. 이번에 HYM집회에 찬양팀으로 참여하면서 남가주지역에도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있음에 감사드린다. 이번 집회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HYM 청년연합집회가 오는 5월3일과 4일 로렌하이츠에 위치한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사진 왼쪽부터 국중현 형제 더글러스 김 대표 이지수 자매

집회 찬양인도는 김섭리 목사(베데스다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찬양가수 최윤영 자매와 헤븐스 벤드가 첫날과 둘째 날 특송을 맡았다.

▲문의: (714)393-5134, (323)458-9322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 뉴저지 목회자 영성수련회

뉴저지 교협(회장: 김동욱 목사)과 목사'(회장: 이병준 목사)가 공동 주관하는 '목회자 영성 수련회'가 5월 12일(월) 오후 5시부터 14일(수) 오후 3시까지 라마나욧기도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라마나욧기도원 개원24주년 기념'으로 라마나욧 기도원(대표: 조남규 목사)이 숙박과 숙식을 제공한다. 강사는 △교회와 가정 건강학: 임장기 목사(얼라이언스 신대원 상담학/설교학 교수 △목회자의 영성: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 담임) △로마서 강해: 김동수 목사(나약칼리지 신약학 교수). 이 행사는 뉴저지, 뉴욕 일원의 영적인 개혁과 부흥의 물결을 기원하며 라마나욧기도원과 뉴저지교계가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선착순 50명에 한하며 접수마감은 5월 4일 자정.

▲문의: (201)335-7357/박근재 목사, 이메일 njkchurches@hotmail.com

제 2회 Happy in Jesus "뚝심" 콘서트

한/미 기독뮤지션 연합콘서트 제 2회 Happy in Jesus "뚝심" 콘서트가 5월 3일(토) 저녁 7시 뉴욕 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4일(주) 저녁 7시 뉴저지 주님의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헤리티지의 밴드와 보컬 멤버들 그리고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연주한다. 이 콘서트는 Happy in Jesus(대표 박범 목사)가 주관하고 플랜플레이(PlanPlay, 대표 이종길 대표)가 기획한다.

▲문의: (516)978-7526

뉴욕지역 찬양과 영성회복성회

4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매 저녁 8시30분 베이사이드에 있는 리바이벌교회(담임 장규준 목사)에서 열린다. "성령님 나를 만지소서" 주제로 강사는 이상목 목사(펜실베이니아 이어리한인교회 담임)와 장규준 목사, 찬양사역자 Joshua Choi 전도사가 찬양을 인도한다.

▲문의: (917)645-8324 최연동 전도사

좋은씨앗교회 설립3주년기념 및 권사취임예배

좋은씨앗교회(담임 임용수 목사) 설립3주년기념 및 권사취임예배가 4월 27일(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말씀은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이 전하며 황동익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김승희 목사(뉴욕교협 회장)가 축사한다.

▲문의: (718)321-3050, (917)617-0170

포코노임마누엘수양관 개관예배

포코노임마누엘수양관(대표 최호진 집사/원장 윤영미 집사) 개관예배가 4월 13일 수양관 대예배실에서 포코노한인장로교회(담임 문성록 목사) 주관으로 개최됐다.

예배는 최낙훈 목사 인도로 최영숙 장로 기도후 문성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문 목사는 "여호와께 맡기라"(잠16:1-3)는 제목의 설교에서 "맡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아주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 '그리하면'의 보상 곧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했다.

이날 축하 찬양은 최낙훈 목사, Claudia Diaz, 최호진 집사가족, 인사 윤영미 원장, 문성록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임마누엘 수양관은 펜실베이니아주 포코노 청솔이 울창한 10에이커 넓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10 Honjo Lane Canadensis, PA 18325. (631)459-6220, (570)481-4276.

〈기새제공: 포코노임마누엘수양관〉

〈3면에서 계속〉

뉴욕지역

예년과 동일하게 뉴욕교협이 주최한 2014년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26개 지역에서 일제히 드려졌다.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는 지난해에 비해 많은 참석율을 보였으며 헌금도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러싱 제4지역(준비위원장 이지용 목사)은 행복한교회(담임 이성헌 목사)에서 전희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 담임)를 설교자로 16개 교회가 참여했다.

예배는 뉴욕겟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김태준 목사(후러싱나사렛교회 담임)의 인도로 기도 이성헌 목사, 찬양 선민교회찬양대, 말씀 전희수 목사, 헌금기도 함성은 목사, 헌금찬양 뉴욕겟세마네교회 중창단, 축도 최웅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부활신앙 회복하여 증인의 삶으로"(행2:31-3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예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기독교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매일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없는 것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 도망했지만 다시 돌아와 순교까지 했다"고 말하며 "단순히 절기로 끝나는 연합예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21일 지역별 준비위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부활절 연합예배 평가회를 가졌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제3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뉴욕교협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제3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주최하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제 3차 마지막 준비모임이 14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장재웅 목사 인도로 기도 유상열 목사, 말씀 김석형 목사, 통성기도, 광고 송일권 목사, 축도 양승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석형 목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빌2:5-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우리가 능력을 상실했기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번 부활절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운동도 기본기를 잘 익혀야 하듯이 신앙도 원초적 본질인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나 자신부터 다시 깨닫고 날마다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며,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합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성기도는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를 위해, 임용수 목사 △교협과 회원교회를 위해, 윤오성 목사가 각각 인도했다.

이날 교협이 발표한 지역별 설교자는 도표와 같다.

한편 연합예배 평가회는 21일(월) 오전 11시 금강산 식당에서 갖는다. 이날 교협은 지역별 준비위원장들에게 헌금과 참석인원, 주보 등을 지참할 것을 공지했다.

〈유원정 기자〉

지역	설교자(목사)
코로나	조원태
우드사이드1	김원기
우드사이드2	김승희
서니사이드	송병기
엘름허스트	이규섭
플러싱1	양승호
플러싱2	이만호
플러싱3	문석호
플러싱4	전희수
플러싱5,6	고석희
플러싱7	김 전
칼리지포인트	문종은
프레시메도우	최창섭
베이사이드1	김종덕
베이사이드2	이종명
리틀넥	이승재
웨체스터	김홍선
스태튼아일랜드	이재덕
맨해튼,브롱스	김영식
브루클린	최병철
롱아일랜드1	임병남
롱아일랜드2	김석형
롱아일랜드3	박마이클
롱아일랜드4	김종일

"미주한인교회 길잡이 되겠다"

기독뉴스 창간5주년기념 및 종이신문 발행축하예배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 발행, 기독뉴스 창간 5주년 기념 및 종이신문(주간) 발행 축하예배가 21일 오후 6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문석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씨존이 5주년을 맞았다. 돌이켜보면 씨존이 기독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송구스러운 마음도 든다. 하지만 앞으로 미주한인교회에 길잡이가 되고 신앙생활에 나침반이 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문 목사는 종이신문 발간과 관련해 "종이신문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왜 종이 신문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안티 크리스천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이때에 어려운 일이지만 기독교를 지키고 전하는 무브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이렇게 종이신문을 발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예배는 양민석 목사 사회로 대표기도 김영환 목사, 성경봉독 김영호 장로, 찬양 뉴호프콰이어, 설교 송병기 목사("그 말씀이 땅끝까지", 롬10:16-21), 축사 이재덕 뉴욕교협 부회장, 최창섭 뉴욕청소년센터 대표, 황동익 뉴욕목사회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진 목사의 인사에 이어 문진영 소프라노가 헌금송을 불렀으며 이종명 목사 헌금기도, 임병남 기독뉴스 편집국장 광고에 이어 황동익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예배에 앞서 파이오니아21(대표 김상철 감독)과 공동으로 선교영화 "잊혀진 가방"을 무료 상영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기독뉴스 창간5주년기념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예배를 마치고 김성국 담임목사(앞줄 가운데 왼쪽) 부부와 강사 이형욱 목사(앞줄 가운데 오른쪽) 부부, 여전도회 회장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주제, 강사 이형욱 목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여전도회 연합수련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지난 14일 본 교회당과 15일 캠프 디울프에서 각각 열렸다.

강사는 이형욱 목사(산호세 뉴비전교회 부목사)로, 이 목사는 개회예배 "돌이킴"(룻1:1-6, 14-22), 오후 1시 예배 "동행"(창5:21-24, 히11:5-6), 오후 3시 예배 "기도하던 여자라"(삼상1:21-28)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퀸즈장로교회 여전도회는 연령별로 에스더, 뵈뵈, 마리아, 브리스가, 마르다, 다비다, 루디아, 한나, 사라, 안나 등 총10개 전도회가 있으며 이번 연합수련회 식사는 남전도회가 봉사했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917)733-7387, Fax.(516)883-1961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718)639-3021, Fax.(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낮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패니쉬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732)310-0022(교회), Fax.(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OC교협 사랑의쌀 나눔운동 전달식

2013년 잔여금으로 라면 전달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가 15일 오전 11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OC지역 사랑의쌀 나눔운동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2013년 사랑의 쌀을 나누고 남은 기부금으로 사랑의 컵라면 1700여 상자(1상자 6개)를 배당받아 타민족을 위한 사랑의 라면을 전달하는 행사를 타민족 교회 지도자 및 관계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오렌지카운티 교협부회장 이호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 윤덕곤 목사(부회장)의 기도와 민경엽 목사(회장)의 인사의 말씀이 있었다. 민경엽 회장은 "라면은 한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라면이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어 행복하게 생각한다. 다른 민족에게 더 많이 나누자는 의도로 라면나누기를 추진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다른 민족에게 표현해서 미국 안에서 즐겁게 지내는 민족들이 되길 바란다. 한인크리스천들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한다. 앞으로 더 많이 나눌 기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승기 목사(부회장)의 축사와 김기동 목사(부회장)의 광고, 타민족 지도자들에 대한 소개로 진행됐다. 전달식을 마친 후에는 컵라면을 먹으며 타민족 지도자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사랑의 라면 나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남미교회 Ivan Guzman 목사 외 10여개처 히스패닉교회 100상자▲베트남교회(Harry Lee 목사: Love Without Boundaries Church) 100상자 ▲베트남 장애인센터(Westview Muli Cultural Program: Angie Nguyen Fisher) 100상자 ▲멕시코 재활원 및 교도소(황예행, 조성현 선교사) 100상자 ▲몽골족 교회 100상자 ▲홈니스(빈민촌교회) 100상자 ▲멕시코선교(바하미션, 이종식 선교사) 100상자 ▲은혜한인교회(200상자) ▲어바인침례교회(200상자) ▲일본인교회(테드황 목사) 50상자 ▲인도교회 100상자 ▲성화선교회 100상자 ▲슈하밋선교회(이재근 목사) 50상자

〈박준호 기자〉

나침반교회에서 열린 OC교협 주최 사랑의쌀 나눔운동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이터널라이프 전출연진 및 스텝들이 공연을 마친 후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연인원 5천여 명...예수 영접시간도 가져

은혜한인교회 '2014 이터널 라이프' 성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문화사역국에서 마련한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2014'가 '한 영혼을 주께로'라는 주제로 11일부터 13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핵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엮어 무대에 올린 이번 뮤지컬은 연인원 5천여 명이 몰렸으며 300여명의 배우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해 감동과 은혜를 안겼다. 또한 공연 후에는 한기홍 목사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향해 예수부활의 메시지를 짧게 전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져 문화를 이용한 전도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기홍 목사는 "이번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췄다. 복음이다.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일어서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쁘며 고난주간을 맞이해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뮤지컬을 상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이터널 라이프에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순수하게 전달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뮤지컬을 보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될 정도로 복음이 뚜렷이 묘사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거리문화사역단체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거리문화사역단체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전도사)의 파킹랏 콘서트가 '더 클래식'이란 주제로 오는 26일(토) 오후 8시 가주영어학교 1층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콘서트 출연자는 소프라노 김희경, 조현주, 테너 오위영, 박재웅, 바리톤 권상욱, 피아니스트 이하늘 씨. 주말저녁이면 유흥의 거리로 변하는 한인타운을 클래식 전공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기독문화를 유흥가에 심는 시도를 하며 클래식과의 거리감을 최소화시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공연은 무료이며 갓 구운 핫도그와 신선한 커피가 제공된다.

▲문의: thetentusa@gmail.com

동부장로교회 부흥회

동부장로교회(담임 이용규 목사)는 '전도자의 삶'(행5:42)이란 주제로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부흥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최동욱 목사이며 일정은 1일과 2일 저녁 7시30분, 3일 오후 6시30분.

▲문의: (213)200-4755

LA주부클럽 어른들을 위한 잔치

LA주부클럽(회장 강금자)이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 잔치를 갖는다. 5월 9일(금)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정오 12시부터 2시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대접한다.

▲문의: (213)703-6211

쉐퍼드대학교 타미워커 특별찬양집회

쉐퍼드대학교는 오는 25일(금) 오후 7시30분 '워십 나이트 위드 타미워커(Worship Night with Tommy Walker)'를 개최한다. 이번 찬양 집회에는 유명 베이스 기타리스트인 아브라함 라보리엘도가 특별 게스트로 나선다.

▲문의: (213)407-9888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열린 FBM주최 가정사역정착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은 강사로 나선 금병달 목사가 강의를 인도하는 모습

건강하고 활기찬 커플생활 돕는다

FBM 주최 가정사역 정착 세미나

Family Builders Ministry(FBM 대표 금병달 목사)가 주최한 가정사역정착 세미나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세계아가페선교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그리고 2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GMAN 사무실에서 각각 열렸다.

금병달 목사와 금정진 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첫날 세미나에서 금 목사는 가정을 이룬 커플 혹은 현재 교제중인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커플체크업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금 목사는 "커플체크업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커플생활을 도울 수 있다"며, "테스트는 500페이지 분량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체크방법이며 300만 커플이 검사했고 현재 2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이며 미국 내에서는 75,000여 기관이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 목사는 "커플관계 체크는 10가지 핵심척도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두 사람 간 조화와 갈등요소를 나타내준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검사를 통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알게 해준다"고 말했다.

금정진 교수는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은 믿는 자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 언급하며 "깨어지는 가정이 증가하는 오늘날 커플관계 체크업을 통해 두 사람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교회가 해야 할 가정사역이며, 이 사역을 통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FBM은 싱글패밀리 라이프스토리 수기공모전을 열고 있다. 응모마감은 4월30일. 응모방법은 편지지 2-3장 분량(한글&영어)이며 응모자격은 한부모가정에 한한다. 접수처는 singleparents32gamil.com로 하면 된다. 제출자 모두에게 100달러가 지급되며 1등은 1천달러, 2등은 5백달러 지급된다. 발표 및 장학금 지급은 행사 당일에 실시된다. ▲ 문의: (714)514-6690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가 주최한 VBS&주일학교 교사컨퍼런스가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즐겁게 찬양율동을 배우고 있는 교사들

VBS &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

어린이전도협 주최... "영적전쟁의 최전선 '어린이'"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가 주최한 VBS &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가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개최됐다. 여병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믿기 쉽고, 잘 받아들이는 시기는 어린 시절이다. 이 시기를 놓쳐버린 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여 목사는 "이미 시작된 때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그 어떤 나라, 지역도 아닌 바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이들을 선교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지구촌 복음화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자 온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컨퍼런스가 이러한 전략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와 교회학교로 나눠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남가주중부교협주최 부활절 새벽예배 모습.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부활신앙"

남가주중부교협 부활절연합새벽예배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회장 허귀암 목사)가 주최한 부활절연합새벽예배는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회원교회들이 모인가운데 열렸다.

이날 인도는 허귀암 목사가 했으며, 증경회장 장재원 목사가 기도를, 그리고 부회장 현에스더 목사가 성경봉독을, 감사한인교회성가대가 찬양했다. 초대회장 김대순 목사가 '부활신앙'(고전15:3-8)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부활신앙"임을 강조했다.

특별기도시간에는 김영대 목사가 '미국, 한국을 위하여', 오병익 목사가 '중부교협과 청소년을 위하여' 제목으로 각각 인도했다.

또한 이날 청소년비전센터 주관으로 영어예배를 감사한인교회 EM 채플에서 100여명이 모인가운데 진행했다. 사무엘양 목사(감사한인교회 교육부 담당)가 "The Resurrection Morning"(마28: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기사제공: 남가주중부교협〉

올림픽 경찰서 내 무료 도서관 설립과 무료 태권도 프로그램을 후원한 황경권 씨 내외(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세번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했다.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 후원의 밤 성황

후원자들에 감사패, 경찰점퍼 등 수여

LA한인타운 관할 올림픽경찰서 오픈4주년을 기념하는 올림픽경찰서후원회(Olympic Booster Association 이하 OBA, 회장 브래드리 변호사)의 '후원의 밤'이 10일 저녁 6시 30분 한인타운 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300여명의 올림픽경찰서 관계자 및 후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이날 후원의 밤은 테리 하라 LAPD부국장과 티나 니에토 올림픽경찰서장 등 경찰 고위 관계자들과 올림픽경찰서 경찰관들이 다수 참석해 한인커뮤니티와 올림픽경찰서 간의 돈독한 관계를 확인했다.

후원의 밤 행사에선 지난 한 해 동안 올림픽경찰서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후원자들에게 감사패 및 경찰점퍼가 수여됐다.

경찰관들의 마라톤 대회의 참가비를 후원한 스티브송 씨와 올림픽경찰서 내 무료도서관 설립과 경찰관 자녀들을 위한 태권도 프로그램을 후원한 황경권 씨에게는 감사패가 각각 수여됐다.

또한 성탄절 산타선물행사에 1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한 질 김씨, 올림픽경찰서후원회와 LAPD경찰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중식당 용궁의 T. J. 왕사장이 명예경찰로 선정돼 그 감사의 뜻으로 경찰 점퍼를 선물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LAPD올림픽 태권도팀의 김영숙 사범으로부터 티나 니에토 올림픽 경찰서장에게 명예단원증과 태권도복, 그리고 검은 띠가 증정됐으며 경찰관 자녀들로 구성된 LAPD 태권도팀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도 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 가진 저녁 만찬시간에는 경찰관 밴드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후원자들의 뜻깊은 손길에 보답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B 코스: 터키 그리스 밧모섭 (바울의 전도에 따라)11박 12일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11박 12일
MISSION VISION TRIP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쿠바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S. Mariposa Ave. Fedora St. LA GUEST HOUSE Vermont Olympic Blvd. 김스전기 한남체인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요나, 그 보다 더한 기적있길"

세월호 침몰사고로 한국교회 간구 이어져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모아지고 있다.

실종자와 그 가족, 사망자 유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은 개 교회와 연합기관 등 오프라인은 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9개 회원교단들은 21일부터 '공동기도기간'에 돌입했다. 내달 11일까지 이어지는 공동기도기간 중 소속 교회들은 저마다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기도에 동참하게 된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기독교장로회총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시 남구 인하로 인천순복음교회(최성규 목사) 앞 하모니광장에서 촛불기도회를 개최했다. 22일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기도회도 열린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요나의 기적이, 그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와 평안이 임하길 기도합시다."

6200여명이 공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크리스천'에는 이같은 내용의 기도 호소문을 비롯해 다양한 기도요청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회원들은 저마다 공감한다는 의미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를 눌러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 기독교정보사이트인 갓피플닷컴의 블로그 '디사이플둘로스'에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실종자와 가족 등을 위한 기도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동영상전문사이트인 유튜브 등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동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설교예화영상 기획·제작 업체인 갓윌기획의 '기도의 권세'가 대표적이다. 5분 분량의 동영상은 지난해 5월 26일 대서양에서 침몰한 나이지리아 선박 '제이슨 4호'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헤리슨 오제그바 오킨씨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그의 인터뷰 내용은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염원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는 자극이 되고 있다.

"물속에 갇힌 아이들만 생각하면…"

눈물바다 된 안산지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0일 오전 4시30분. 안산지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지는 안산동산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때문인지 여느 부활절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성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지만 분명 침울한 목소리였다.

오전 5시가 되자 예배가 시작됐다. 사회자로 나선 유재명 안산시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나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데 안산지역이 아파하고 대한민국이 아파하고 있다"면서 "매년 드리는 부활절 예배이지만 남다른 음성을 기대하며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했다. 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안산지역 349개 교회 중 23개 교회에서 사망 1명, 실종 53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고훈 안산제일교회 목사가 '십자가로 부활하라'는 설교를 했다. 고 목사는 "70여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목사로서 이렇게 무능하고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면서 "지금도 300여명의 아이들이 뱃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에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통탄을 했다.

"지금 우리 안산은 눈물의 땅이요, 통곡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두 살 박이 어린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통곡의 땅이 됐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슬픔의 땅이 됐습니다."

고 목사는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기쁨의 축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녀야 하는데 물속에 갇혀있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도 잘 수도 없다"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피눈물이라도 흘리겠다"며 애통한 심정을 피력했다.

고 목사는 "그러나 죽음이 어둠이라면 부활은 빛이다. 죽음이 쇳덩어리라면 부활은 용광로다. 죽음이 흙탕물이라면 부활은 바다다"면서 "부활 앞에 어둠은 삼천리 밖으로 밀려나게 돼 있기에 부활의 예수가 슬픔과 아픔을 삼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기성세대와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목사는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으며 침수되는 배가 위험함에도 자리를 지키라고만 했다. 23개나 되는 구명보트를 이용해 우리의 청소년을 대피시키지 못했다"면서 "우리 어른들이 무책임 속에 달려갈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지닌 아이들을 가둔 것"이라며 절규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열어주실 것"이라며 '생존자는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잠자는 자는 부활로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시를 낭독했다.

3000여명의 성도들은 설교 중간 "아버지"를 나지막하게 부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장내가 눈물바다가 된 것은 안산 빛나교회 진주은 교사가 실종 학생들을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글을 낭독할 때였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어디 있니?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다. 대답 좀 해봐라. 선생님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참석자들은 통성으로 여객선 사고로 고통을 겪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 안산의 복음화와 다음세대를 위해 간구했다.

예배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비통한 심정을 나타냈다. 고잔동에 거주하는 정영화(78)씨는 "바닷물 속에 갇혀 있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식들 아니냐. 가슴 아프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 힘들다.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자녀 결혼식 준비 때문에 대전에서 온 김영란(62·여)씨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아이들을 희생시킨 기성세대의 잘못을 통감하며 회개했다"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현금 · 교회 출석은 교인의 의무"

'교회정관 개정 바람직한가' 논란 가열

교회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을 십일조헌금과 예배 출석 여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교회정관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최근 모 방송이 '십일조 의무규정'이라는 자극적 용어를 써가며 "일부 교회가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정관에 새로 도입하면서 다른 교회들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해 성도의 의무와 권리를 호도하는 보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같은)정관 개정은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세우고 이단 등 기독교 안티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대부분의 교단은 헌법에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헌금), 교회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고 교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대상29:14)이자 숭고한 신앙고백의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교인이 마땅히 지켜야할 일이라는 의미다. 예배 출석 역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드린다'는 뜻이면서 교회의 행정적 절차에 참여하는 교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덕목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교인의 의무는 교회 전통이어서 그동안 교회 내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일부 대형교회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교회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헌금의무 등 교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교회2.0운동 등은 지난달 26일 '악법도 법인가'라는 포럼을 갖고 "(헌금 등)의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인 자격과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돈을 잣대로 신앙을 규정하고 교회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오세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상당수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허수가 많아 교적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헌금과 주일예배 출석 등을 통해 진짜 교인 여부를 파악해 교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십일조 의무화' 논쟁의 본질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돈 문제를 끄집어 내 대중을 자극했다는데 있다"며 "6개월 이상 교회 출석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던 사람이 (교인이라면서) 공동의회나 중직자 회의, 당회에 참석해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기연 서울신대 예배학 교수는 "헌금과 예배출석, 교회 권위에 대한 복종은 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면서 "요즘같이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한부 종말론 주창…20-40대 여성이 타깃"

구 안상홍증인회 포교활동 예방책 시급 주장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교회)가 부녀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예방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대책모임(하피모)과 하나님의교회 탈퇴자 모임인 시오니즘은 9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창하며 특히 정통 교회 성도 중 자녀를 둔 20-40대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종교집단"이라면서 "신도 중 95% 이상은 정통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인 만큼 육아, 가정문제 등으로 접근해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등 7가지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면 즉각 목회자에게 보고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근병 시오니즘 대표는 "하나님의교회가 신천지보다 위험한 이유는 중독성이 강한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해 여기에 빠진 부녀자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교회는 출입시 지문인식을 해야 할 정도로 극히 폐쇄적이며, 철저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운용하고 있어 다른 이단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하나님의교회를 담임했던 우종현씨는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며 400개 교회, 20만명 신도로 교세를 계속 확장시켜 왔다"면서 "이렇게 형성한 재산만 3조~4조원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하나님의교회는 포교활동을 할 때 출석 교회 교패가 붙어있는 집과 어린 자녀들의 빨래가 널려있는 집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만큼 교패를 떼어내고 '옆집 아기엄마'라며 2인1조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님의교회는 1985년 사망한 안상홍 씨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집단으로 예장 통합, 합동, 합신 등 주요교단이 이단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날 시오니즘은 하나님의교회 부속기관인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회장 장길자, 대표 이강민)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성남지검에 고발했다.

"이런 말로 접근한다면 시한부 종말론집단"

탈퇴 · 피해자 모임, 포교수법 공개

하나님의교회 탈퇴자 모임인 시오니즘과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모임(하피모)은 17일 하나님의교회가 부녀자들에게 접근하는 포교법을 전격 공개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1918-1985)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71)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으로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단체는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은 2인1조가 돼 어린 자녀의 빨래가 널려있는 주택이나 정통교회의 명패가 부착된 아파트를 집중 공략한다"면서 "특히 방문 때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지진 쓰나미 전쟁의 참혹한 영상을 보여주며 '성경의 예언대로 재앙의 날은 다가온다'고 위기감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시오니즘과 하피모는 "일본 쓰나미나 인도네시아 지진, 핵폭발 등의 영상을 시청한 이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교회 전도인(포교자)들은 성경을 펴가며 '유월절을 지킬 때 재앙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안식일'과 '두 하나님'의 존재로 호기심을 유발한 뒤 정통교회 성도들을 빼가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두 단체는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안식일 문제를 꺼낼 때 마가복음 16절 9절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한국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일요일 날 드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토요일이 정확한 안식일이 되지 않겠냐'며 혼란에 빠지게 한다"면서 "이때 '확실한 증거'라는 전도책자에 수록된 '교회사'(대한기독교서회)를 보여주며 '일요일 예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성경말씀을 제시하며 '그 모양대로 나온 사람이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다'며 잘못된 성경공부로 이끈다"고 설명했다.

강근병 시오니즘 대표는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신도들의 재산 헌납을 요구하고 '이 땅의 가족은 가짜이고 하늘가족이 진짜'라며 가정의 행복까지 파괴 시킨다"면서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집단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하피모.com·시오니즘.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303)-422-6950, Fax.(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느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토,주일)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열린)
Tel.(253)535-6207, 531-8424
Fax.(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253)536-6675, Fax.(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젊은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az.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변하는 아시아와 새로운 선교전략" (1)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I. 종교자유 정도에 의하여 구분된 아시아의 4개 지역별
1. 아시아-1국가
2. 아시아-2국가
3. 아시아-3국가
4. 아시아-4국가

II. 오늘의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바울의 선교전략
1. 1세기의 에베소와 오늘의 아시아의 공통점
1)최대의 인구
2)종교의 도시
3)죄악의 도시
4)기독교인의 핍박
2. 에베소 복음화를 위한 바울의 선교전략

III. 아시아 복음화에 도움이 되는 3개 중요한 현대 상황
1. 아시아교회의 놀라운 교회성장
2. 아시아의 "상황화"로부터 세계 "지구촌화"로 강조
3. 현대 매스미디어

IV. 오늘의 아시아의 5개 중요한 선교이슈
1. "민족복음화운동"의 중요성
2. 선교사의 재배치 수정의 필요성
3. 복음주의교회의 선교신학의 이슈: "교회의 최대 사명이 무엇인가?"
4. 이슬람국가의 교회지도자 양성의 시급성
5. 어떻게 중국교회를 동원하여 세계선교운동을 이룰 것인가?

결론

반 기독교적 핍박정책 아시아국 4지역 구분
아시아교회의 5개 중요한 선교적 이슈 다뤄

아시아에 대한 선교전략을 지혜롭게 논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시아는 전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문화, 언어, 역사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적으로 아시아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하나로 통일된 아시아는 없는 것이다. 저자는 OMF선교사로 아시아에서 30년 사역하였다. 싱가폴(1970-1974), 대만(1975-1989), 한국(1990-2000)과 미국의 신학교에서 교회사와 선교학을 가르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논문은 먼저 1세기 때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편지했을 때 교회지도자의 은사를 강조한 선교전략이 21세기 아시아교회에도 대단히 중요한 선교전략인 것을 표시하였다. 물론 1세기의 에베소교회의 상황과 21세기 아시아교회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인 에베소를 복음화 시키기 위하여 20여개의 성령의 은사 중 교회 지도자의 은사(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의 아시아교회에도 교회 지도급의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 논문은 최후로 현재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반 기독교적 핍박정책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교회의 5개 중요한 선교적 이슈를 다루게 된다.

아시아는 적어도 44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동북아시아(6개국): 일본, 남한, 북한, 중국, 대만, 몽골리아, (홍콩) △동남아시아(10개국): 필리핀, 미얀마,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남아시아(8개국):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중앙아시아(5개국): 카작스탄, 우즈베키스탄, 케리키스탄, 터키메니스탄, 타직스탄 △중동지역(서아시아, 15개국): 요르단, 시리아, 이락, 이란,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소말리아, UAE.

I. 종교자유 기준으로 나눈 아시아의 4개 캐리고리

저자는 아시아에 속해있는 44개 국가들을 종교적 핍박의 정도를 기준으로 4개 캐리고리로 나누었다.

1. 아시아-1국가: 일본, 남한, 대만, 필리핀, 태국, 싱가폴, 인도, (홍콩)

아시아-1에 속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자유와 외국선교사들의 활동을 허락한다.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아시아-1에 속한 교회들의 교회성장율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시아 선교사를 타국에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는 170개국에 2만5천명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으며 인도교회도 약 3만 인도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인도 남부지역에서 북쪽 힌두교 지역으로 파송하고 있다.

2. 아시아-2국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말래시아, 브루나이, 이스라엘, 레바논.

아시아-2에 속한 정부들은 종교자유를 허락하지만 그 정도는 서로 다르다. 교회는 정부의 제한된 종교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불교국이나 완화한 이슬람국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자국의 정통종교와 정치사상을 북돋우며 기독교에 제한된 종교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3. 아시아-3국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중동지역의 대다수 이슬람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

아시아-3에 속한 국가들은 보수주의 이슬람국가들이며 기독교인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정도의 심한 종교핍박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23일 파키스탄 북쪽에 있는 Peshwaru라는 도시의 All Saints Church에서 주일아침 예배를 드리는 도중 무슬림 자살폭탄자 2명이 폭탄을 터트려 81명이 사망했고 140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반 기독교적인 무슬림 테러사건들이 다른 이슬람국가에서 수백번 반복되고 있으므로 아시아-3 국가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주일예배 참석까지도 꺼리며 교회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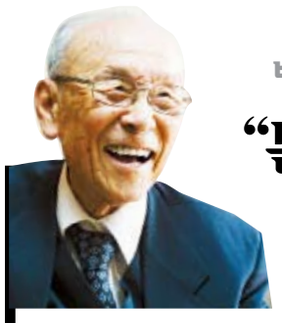
초대교회 기독교인이 유대인과 로마 군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상황이 21세기에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3국가에 사는 기독교 소수민족은 그들의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릴 가망성을 느끼면서 7세기에 일어났던 반기독교적 이슬람교 핍박이 되풀이 되는 것을 추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주후 622년 모하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설한 후 무력으로 기독교가 성황했던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기독교를 그곳에서 사라지게 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아시아-3국가에서 핍박을 받고 사는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곳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4. 아시아-4국가: 북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예멘, 마우리타니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10개 최악의 국가들).

오픈도어선교단체는 아시아-4국가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10개의 최악의 국가들"로 취급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 자기가 기독교인라고 표현도 하기 어렵고 감옥에 감금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종교자유와 인권의 최악의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북한 공산당원이였던 이순옥은 감옥에 6년(1986-1992) 동안 있으면서 같은 감옥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는 마치 "꼬리 없는 동물의 반짝이는 눈"이라고 표현했다. 이 기독교인들은 굶주리며 노예같이 노동하여 허리가 구부러져 두 다리 안으로 굽혀지는 모습은 마치 눈만 반짝이는 원숭이같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순옥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이민 와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북한에 12개 감옥 수용소에 20만명이 감금되어있고 그중 40,000-60,000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비참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꼬리 없는 짐승의 눈빛"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또한 근래 북한 노동수용소에서 태어난 신동혁은 감옥에 24년간 감금되면서 수다한 고통을 경험하다가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탈북자로 도피하여 자기 경험을 "수용소 14번으로부터 탈출"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방지일 칼럼 (36)

"본대로 들은 대로"

구름사진

옛날이라 할까 옛날이기도 하다. TV도 없을 때 라디오를 통한 천기예보가 매일 같이 보도되었다. 학교에선 봄가을 소풍 가는 때에 그 천기예보를 주시한다. 비 온다는 예보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엔 아이들 마음이 들떴다가 실망도 한다. 취소하고 공부하자 하니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설렁이는 동안 천기는 밝아진다. 이제라도 가자하나 많이 늦어 이도 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때로 있다. 그때에 웃기는 말들이 나돌았다. 우리 라디오는 분명하게 비 온다 했는데 그 얼마짜리 라디오인가? 그러니 제대로 맞을 수가 있나? 이런 농담 같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제는 위성시대라 일기예보 할 때에 TV에 분명하게 구름사진이 보여진다. 그 구름이동도 보여진다. 우리나라 지도 위에 다 덮여 있기도 하고 중국대륙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사진도 시청자에게 보여주면서 일기예보를 소상하게 해준다. 구름이 옅게 낀다. 두텁게 낀다. 해가 간간히 보인다.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바람은 무슨 바람이 어떤 속도로 분다. 바다의 물결이 먼 바다 가까이는 몇 미터로 인다. 그렇게 소상하게 보도해준다. 항해 선박에게 주의도 환기시킨다. 흐리고 비나 눈 오는 확률은 30%, 50% 내지 80% 이런 식을 보도한다. 아무리 과학적 측정이지만 확률을 퍼센테이지로 한다. 100%라고는 하지 못한다. 금석지감(今昔之感)이다. 라디오가 좋지 못해서 천기예보가 안맞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거의 정확한 보도를 함을 듣는다.

위성이 구름 사진을 지구상으로 계속 보내오는 모양이다. 지구촌의 모든 정형은 저 위성이 낱낱이 보고 있다. 길에 가면서 보는 신문을 위성이 사진으로 보내는데 그 사진으로 모스크바 신문을 미국에서 읽을 수 있다니?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현실에 살면서 친히 이용하고 보고 듣고 있으면서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만으로 흘려보내는 무신론자들이 아직 있다는 말인가. 그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은 무소불능 무소부지 무소부재 곧 전능 전지 전재하신 분이시다. 이를 못 믿겠다고 반역할 수 있을까, 손바닥에 쥐고 다니면서 서로 대화하는(핸드폰) 이 세상에 내 기도를 전능하신 이가 들으신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무시할 수 있을까.

구름 사진을 무시로 찍어 보내는 위성이 있다. 지구 위에서만 이겠는가. 우주 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보시고 계심을 아직도 불신하고 사는 이가 있을까? 그러면 이전 세대에 사니 그렇구만 하는 수긍을 하게 되어 믿게 된다는 말은 아니라 완고한 사람은 천기의 변화의 주는 교훈은 줄곧 교훈하건만, 먼 천기의 변화는 고사하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그 교훈도 거절하는 역도는 자고로 있어온다. 후에 핑계는 못하리라. 그래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뿐이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세상에서 떠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신 바이시다. 아무리 과학이 천명하여 이제는 깨닫고 살 것 같으나 완고한 자는 그대로 완고할 뿐이다. 보혜사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내 마음 속에 생각하는 바를 사진으로 찍어 보이실 때에야 깨달으면 늦었다. 실은 때로 보내주신다. 그가 내 위에 내 안에 계시어 실물교수를 끊임없이 하시는데 이를 무시한다 함은 역도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의 원리에 다 마련한 것을 사람이 이제사 위성을 만들어 띠워놓고 천기만 바로 고해 줄 뿐 아니라 구름 사진만 보내오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까지 사진에 찍듯이 저 위에서 샅샅이 살피시사 내게 보내주신다. 아니 벌써 성경 전편에 내 일체 삶의 비밀도 벌써 말씀해주신 것이다. 위성시대라고 새삼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다. 말씀에 사는 자는 그 말씀이 내 거울이라 내 마음속을 내 사상을 일일이 뒤집어 보여주심이 성경은 내 속을 비취는 거울이다. 내 죄를 찾아내는 현미경이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또 주야로 묵상하라 하심이 이 때문이다.

〈1999년, 2권〉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062)523-9419, Fax.(062)522-4834
500-170 광고광역시 북구 운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03)3208-8491~5, Fax.(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82)2-440-9000, Fax.(9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82)51-740-4500, 4556~8, Fax.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선교 편지

아프리카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아프리카에서 살아본 한국 외교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 제목으로 아프리카를 잘 표현한 명언과 같다. 하지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아프리카는 없음과 죽음의 대륙이지만 십자가 의미로 보면 인류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고통의 땅이다.

고통의 땅이 어떻게 인류를 살릴 수 있을까?

십자가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대해, 높음이 아니라 낮음에 대해, 환대가 아니라 버림받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약함과 낮음 그리고 버림받음이 단지 멀리하고 싶은 고통일 뿐이지,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그 속에 있음을 잘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편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한다. 하지만 올림픽에 출전할 운동선수가 편하게 먹고 자고 마시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없다. 몸에서 땀을 쥐어짜는 듯 한 고통을 감내하며 모질게 혹독한 훈련을 해야 하는데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면서 편한 것은 바로 탈락이고 퇴출이다. 그 편한 것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

믿음의 경주인 제자의 삶이 이와 똑같다. 삶의 목표 즉, 우리에게 상실된 영적 생명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 늘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누가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해도 도와준다고 해도 절대로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가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통은 과거와 미래에서만 아름답게 보이지 현재는 그런 것이 없다. 고통을 버리고 싶지만 고통 없는 날은 바로 영적 죽음의 날이다. 가족도 교회도 학교도 사회도 국가도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을 피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도 뜻한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십자가 아래서 자기 부인의 삶이며 부활까지 잠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순례자의 여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엇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고통이 아닌 것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를 서구사회의 물질적 풍족한 삶으로 접근하지 말자. 즉,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 무엇이 되게 하자. UN을 비롯하여 수많은 NGO들과 교회까지도 빈곤한 아프리카에서 처음부터 무엇을 주려고 하는데 식량을 비롯하여 보이는 것만 주는 것은 아프리카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을 받아서는 절대로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 무엇이 되어야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인가?

살아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슈바이처와 같이 아프리카에 와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신사도 운동으로도 안된다. 방언과 예언 그리고 병고침으로도 어렵다. 현실과 실존 그리고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고통을 요구한다. 즉, 그것은 아프리카의 가난과 고난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살아 있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되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비롯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현실과 실존에서 얻는 고통이 영성이고 믿음이고 신앙이다. 아프리카 사람들 속에는 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살아 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차고 넘친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그것을 볼 수 없을 만큼 숨겨져 있다. 가난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 이것을 꼭꼭 숨게 만들었다.

살아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시험을 인내해야 한다. 인간은 시험이 없으면, 고통의 연단이 아니면, 절대로 자아를 부인을 할 수 없는데 그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가난과 고난, 죽음 속에 영적 원리가 있다.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아프리카 선교는 무엇을 주려고만 한다. 무엇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누구나 가난과 고난 그리고 죽음 때문에 좌절하며 방황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가 살아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삶과 실존이 어렵고 힘들 때, 가난과 고난이 있을 때, 바로 그때만이 참된 자기 존재를 알게 되는 유일한 기회이다. 그리고 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신다. 결국 어렵고 힘들고 없고 약하고 안될 때 바로 그 고통 안에서 살아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적인 큰 인물로 보인다. 환란을 당하면서도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 자세, 빈곤한 가난 속에 살면서도 최대로 부한 자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세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환난이 분노를 주고, 약함이 두려움으로 유혹하고, 가난이 비굴하게도 만들지만, 그들 속에 숨어 있는 영적 가치와 본질적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가난과 고난 그리고 항상 죽음 속에 사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조용히 귀기울여 보면 어떻게 그들이 그 가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극심한 고난에도 감사하고 저주와 같은 죽음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아프리카는 고통과 모순 무질서와 상실 그리고 죽음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말로 영적인 거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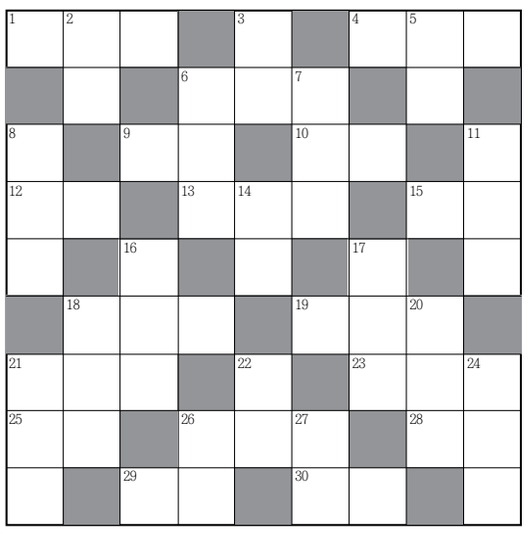
죽음의 불청객인 에이즈와 말라리아로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남은 자들은 눈물로 이웃 사랑을 배운다. 모순과 무질서 그리고 없음과 죽음이 시간을 멈추게 함으로 바쁨이 없다. 작열하는 낮의 태양과 사탄과 같은 밤의 모기가 공부를 방해해 자신을 자랑할 지적 우상도 없다. 생명이 숨쉬는 땅을 덮어버린 아스팔트와 무한 경쟁의 소비도시 그리고 고립된 아파트의 편리함은 없지만 육체의 본질인 흙과 투쟁하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만들며 대가족 농촌 공동체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 그리고 식물과 미생물까지도 단절될 수 없는 생태적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프리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영적 진리가 차고 넘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가난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직시하면 그 모든 모순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 세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고통의 현상이 아닌 고통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간의 고통과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른 의미를 깨달아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아프리카 대륙에 흘러 넘쳐 혼란한 시대에 고통 받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생명과 안식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아프리카가 되기를 사순절에 소망한다.

오직환 선교사
이메일: zamcef@g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3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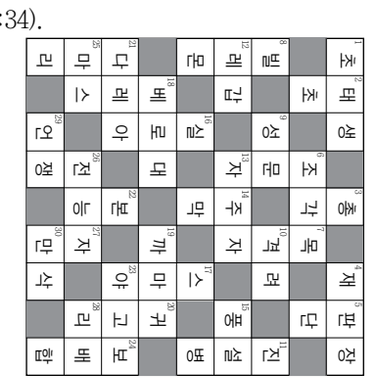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모태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민8:16).
4. 법원에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재판관(신19:17).
6.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출25:5).
9. 성곽의 문(시69:12).
10.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우어 힘쓰도록 함(욜3:9).
12. 겐족속의 조상(대상2:55).
13. 남의 보호나 간섭을 안받고 독립하여 행하는 사람(갈3:28).
15. 실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렘51:46).
18. 다윗이 소바와 수리아를 격파하고 이곳에서 많은 놋을 빼앗아왔다(삼하8:8).
19. 검은 새. 더러운 새로 간주(레11:15).
21. 미가의 셋째 아들(대상8:35).
23. 예수님의 동생(막6:3).
25. 셈의 손자요 아람의 아들(창10:23).
26. 어떤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절대의 능력을 가진 자(욥6:14).
28. 기브아 사람인데 다윗의 30용사 중 잇대의 부친(삼하23:29).
29. 말다툼(딤전6:4).
30. 해산할 달이 참(고전15:8).

<세로 푸는 열쇠>

2. 하나님이 스스로 게시던 맨 처음(요1:1).
3. 장가들지 않은 사내.
5. 상대의 여하를 의식 작용으로 결정하는 일(고전6:2).
6. 슬픔을 당한 사람을 방문하는 사람(전12:5).
7.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눅1:2).
8. 골로새인으로 바울의 전도를 받아 유력한 신도가 됐다. 오네시모와 유관(몬1)
11. 지성소에 차려놓은 떡(출25:30).
14. 시골 길가에서 술과 밥을 팔거나, 나그네를 재우는 집(눅10:34).
16. 예루살렘 동남부에 있는 못(사8:6).
17. 르호보암 왕 시대의 선지자(왕상12:22).
18.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창46:12).
20. 여자들이 귀에 거는 장식물(민31:50).
21.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믿은 여신도(행17:34).
22. 세상에 난 뒤에 경험과 교육에 의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갖는 성능(유1:10).
24. 귀하고 중한 물건을 담아 놓는 그릇(마2:11).
26. 무력으로 국가 간에 싸우는 일(출1:10).
27.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거만하게 자랑함(렘23:32).

십자말 정답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213)215-8523, Fax.(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 오전 9:1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4부 예배 : 오후 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45
주일3부예배:오전 11:45
주일영어예배:오전 9:45,11:45
새 벽 기도회:오전 6:00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323)466-1234, Fax.(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 은 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0577
3521 Lomita Bl. #200 Torrance CA.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오후 1:00
일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 대 예 배: 오전11:15
주일영어예배: 오후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 일 학 교: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비전Acts 1:8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고,대,청년부: 오후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562)690-9800, Fax.(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 변윤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yon@gmail.com
Tel.(714)826-0100, Cell.(714)944-9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한어 2부예배: 오전11:00
성 경 공 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교 육 부: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아케디아 온누리 소망교회

담임목사 : 조묘숙
주 일 예 배 : 오후 2:00
금요기도회 : 오후 9:00
새 벽 기 도 : 오전 5:30(화-금)
Tel.(626)533-1155
1741 South Baldwin Ave, Arcadia, CA 91007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오후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 오전 11:00
Tel.(818)249-2871, Fax(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청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57)

3. 전체 한인공동체에 대한 사역에 힘써야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는 지금 우리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들 중 그 세 번째,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은 전체 한인공동체에 대한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교회 두리 안에 있는 한인비율의 현저한 감소를 설명하는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이유, "오랜 동안 쌓여온 한국 및 한인교회들에 대한 실망"이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교회들과 교계 그리고 한인교회들과 한인교계에 대해 오랜 동안 실망이 쌓여온 것이 한인들의 신앙생활 비율을 현저하게 낮춘 이유 중에 하나라면, 한인교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먼저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회개가 이뤄져야하며, 또한 고국의 교회들도 함께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추동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반성하고 변화되어야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인들을 비롯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부분은 역시 교회가 도덕적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기독인들에게서도 쉽게 나타나지 않을 부도덕의 예들을 많이 생산해왔다는 점입니다. 비기독인 한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비독교인들은 교회가 마땅히 그 자신의 가르침대로 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도덕이 무너진 이 사회에서 교회가 윤리적인 모범이기를 기대하며, 가치있는 삶의 모습을 위한 최종 보루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시키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는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한인교회들이 가지는 전체 한인공동체를 향한 교육적 책임을 고민할 때, 삶에서의 도덕적 모범을 시현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비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가 가르치는 윤리들 자체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온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물론 모든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신들이 믿고 가르치는 바들을 실상에서는 오히려 반하고 거스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기독교 윤리에 신뢰를 보내던 사람일수록 더욱 더 많이, 자신들이 믿고 가르치는 훌륭한 기독교적 삶의 윤리를 책임있게 실천하기는커녕 거스르고 저버리는 교회들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었을 테지요. 그리고 이것이 한인공동체에서는 현저한 교인비율의 감소의 현상으로 가시화되었던 듯 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한인교회들의(또한 교회 전반의) 모습들에서 실망하며 비난하는—심지어 거친 욕을 하는—실례들은 목회자들을 비롯한 소위 신앙이 돈독하다 여겨졌던 사람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일부 목사님들의 성스캔들, 금전비리 스캔들, 도박 스캔들, 표절 스캔들, 세습 스캔들 등 개인의 영역이라 하기엔 너무 파장이 큰, 설사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했어도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 전체 한인 사회가 (사실 전체 교회가) 들썩였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자질 부족 및 수준이하의 인격, 그리고 목회자 사모들과 자녀들의 모범적이지 않은 생활 등도 단골로 도마에 오르는 이슈이지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기도하고 사람 좋고 신실한 장로님들이 사업장에서는 악덕 고용주가 되어 고용자들을 억압하고 상처 주거나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 또한 개별 교회 공동체들에서 벌어지는, 비기독교 공동체들에서도 잘 없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일들도 우리 한인들을 많이 실망하게 한 실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하고, 세력 싸움하고, 서로 다투고 비난하다가, 결국 갈라져서 다른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 또한 자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내서 교인수 늘리는 일에 열심인 모습들에 정말 많이들 비난받곤 했지요.

이에 한인교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란 삶에서의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교회의 변화된 모습들을 전체 한인공동체를 향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제를 실족케 하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니 말입니다. 물론 윤리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공동체 전체를 위한 교육적 책임을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들의 비윤리적인 모습이, 많은 교회두리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교회로 이끌고, 지속적으로 성숙하도록 양육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윤리적 모범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이상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도덕적 모범은 필수
말씀의 구속 증거보다 선한 행동이 접근 쉬워

게다가 사실 양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인들의 비윤리적 삶은 결국 복음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비윤리와 함께 가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변명이 아니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한인교회들은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그래왔기에 그저 방치하며 타성에 젖어 이제는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들에도 스스로 무디어져 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성화해 가야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이므로 한인교회들은—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분명 윤리적으로 소소한 실수도 있을 것이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더러 보일 것입니다. 반성과 회개는 완전무결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기에 앞서 그 반성과 회개, 교회들이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들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시13:1-2)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가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요?" 언뜻 듣기는 상당히 믿음이 없어 보이고 말도 안되는 탄식같지만 이 기도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성도의 진실한 외침인 것입니다. 2절에도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마음속에 경영하는 것을 쌓아 둔다"라는 뜻으로써 마음속으로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쌓아둔다는 뜻입니다. 이 때 우리는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탄식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결국은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시13:3-6)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고통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더욱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매력입니다.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조롱하며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원수가 기뻐하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더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미 마음에 응답을 받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후대하신다는 뜻은 내가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넘치게 혜택과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시14:1-4)

시14편은 53편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시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그 종말에 대해 자세히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기도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목해야 할 구절 3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히브리원문에 보면 강조형을 사용함으로써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새 생명을 입고 오늘도 은혜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 어리석은 자의 모습(시14:1-3)

본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나뭇잎이나 꽃이 시들어가고 떨어지고 색이 바라서 죽어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영적으로 표현하면 지혜와 이성 그리고 정직함과 경건함이 모두 빠져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불신자가 되는 것은 그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부터 괴상한 주장을 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안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진정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금 어리석은 자의 모습(2)(시14:3)

어리석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3절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더러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들려지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특별히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13: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며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순종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토 어리석은 자의 최후(시14:4-7)

어리석은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면서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성도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공포가 이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찬 가운데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할렐루야!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요.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God so Loved the World" 전시회 갖는 진효비 화백

다양한 십자가 모습...인간의 죄 사해주신 하나님 사랑 표현

십자가의 사랑을 한 폭의 그림으로 승화시킨 재미 화가 진효비 화백의 전시회가 미주복음방송 4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40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진효비 화백은 "사순절 기간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40일에서 착안했다"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날수와 출애굽 연수의 공통점은 40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4입니다. 이번 전시회도 4월 4일에 시작하게 됐고 전시회가 열리는 이곳 복음방송 컨퍼런스룸도 4층입니다. 전시하는 작품수도 40점이고요. 또한 저의 그림의 컨셉이 십자가인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십자가 컨셉이 잘 들어맞아서 의미 있는 전시회로 열리는 듯 해서 기쁩니다"고 말한다.

미주복음방송 4층에 마련된 'God so Loved the World' 주제로 열린 십자가 성화 전시회장의 자신의 그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진효비 화백

20년간 그림작가로 활동한 진 화백은 오직 십자가만을 그려왔다. 진화백의 작품에 표현된 십자가들은 동일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들로 구성이 돼있다. 마치 인간이 지은 온갖 죄들을 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처럼 말이다.

사순절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까지 인도한 40일을 모티브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왠지 가슴 한곳이 뭉클해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작품이 십자가 컨셉이 많은데요. 새하얀 캔버스에 십자가를 그리다보면 마치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방언기도가 나오기도 해요."

1985년 부터 1993년까지 한국에서 패션모델로 왕성한 활동을 한 진효비 화백. 당시 최효비란 이름으로 반도패션의 모델로, 그리고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하던 그가 화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취미생활로 해오던 그림활동 덕분이었다고 언급했다.

"당시 효비부띠끄를 운영했었어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림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꽃에 벌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실제 모습 같다고 지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화가의 길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진 화백은 그동안 해오던 패션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화가의 길로 갈 것인지를 놓고 기도하며 고민해오다 그림 작가의 길로 가게 된다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었고, 화가의 길이 아니라면 싫증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고 기도하며 작품을 하나하나 그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다고.

"우연히 그리게 된 그림이 반응이 좋았고, 권유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말리부 지역에 있는 오일페인팅 화실을 찾아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진 화백은 어느 날 자신의 그림에 대해 누가 그렸냐고 할 정도의 반응이 있자,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음을 깨닫고, 집에서 키우던 화초들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미화가 김소문 선생에게 찾아가 사사를 받기도 했던 진 화백은 김소문 선생에게 극찬을 받을 정도였다.

화가로 명성이 높아진 그녀는 말리부에 위치한 페퍼다인대학교의 바이블강의에 초대됐으며, 한국 조선화랑 초대전, 코엑스에서 열린 아트페어에도 참가했고 10차례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코엑스에서 열린 아트페어에서는 그녀의 작품이 새에덴교회에 팔리기도 했다.

자신의 그림이 선교의 툴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힌 진효비 화백은 자신이 그린 십자가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구원의 십자가 능력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교륜 목사(워싱턴중앙장로교회 협동)의 아내인 진효비 화백의 전시회 'God so Loved the World'의 전시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한다. 자세한 문의는 (213)703-1335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7면에서 계속〉

하지만 카이퍼가 하원에 법안을 제출한 후 무정부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소위 저항위원회(A Committee of Resistance)를 구성하여 카이퍼의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 위원회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급진 무정부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또 다시 노동자를 선동해서 정부전복을 시도했으나 의회의 법안이 압도적인 다수로 승리했다. 세 법안 모두 통과되고 카이퍼는 승리했다. 그 후로 화란에서 철도파업은 사라졌고 혁명적인 선동자들의 선동에 휩쓸려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철도회사는 2천명을 해고시켰다.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카이퍼를 두려운 아브라함, 야만적인 권력의 사나이로 비판했으나, 카이퍼 수상은 카이퍼 내각을 최상의 봉사기관으로 만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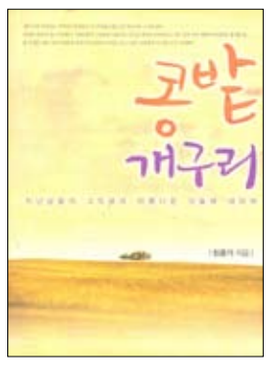
새책소개

저자 민준기 목사

"콩밭개구리" "벗으면 부끄럽다"

가주장로교회를 개척하고 24년 동안 섬겨오다 4월 6일 은퇴한 민준기 목사가 은퇴와 함께 "콩밭개구리", "벗으면 부끄럽다" 등 두 권의 책을 출간했다.

한권의 책은 성경을 읽기 쉽고 이해가 쉽도록 수록했고 또 한권의 책은 맘속 깊이 묻힌 추억의 그림자들을 끄집어내 회고하며 적었다. 민 목사의 신간 두 권의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날들의 그리움과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콩밭 개구리"(쿰란출판사)는 미국에 온지 38년의 세월 속에 잊고 살아온 듯 한 지난 추억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 맘속에 깊이 숨겨졌던 이야기들이 하나 둘 되살리며 그것들을 글로 엮어낸 책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막상 추억을 들추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생각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기도 했으며 글 작업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 글을 시작한지 15년 만에 마무리를 하다보니 어느 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회고하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불혹(不惑)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 24년간 사역하다 은퇴하게 됐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일생을 통해 느낀 슬픔과 기쁨, 감사를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콩밭개구리" 그리움과 아름다움의 추억풀이

본서는 총 6부로 구성됐다. 1부 믿거나 말거나, 2부 그 집에 가지마라, 3부 선극유종, 4부 암호풀이, 5부 짬뽕을 좋아하는 이유, 6부 불혹의 나이에, 로 크게 나뉘어 80여 편의 글이 수록됐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는 부제를 달고 있는 "벗으면 부끄럽다"(쿰란출판사)에 대해 저자는 "이 책은 신학서적도 아니요 설교집도 아니다 필자의 사상을 주장하려 함도 아니고 독자들에게 공감을 강요하려 함도 아니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보자는 생각으로 집필했다"고 서문을 통해 출간 목적을 말하고 있다.

"'아담아! 이 사람은 너를 도울 네 짝이다. 서로 사랑하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시고는 그 여인의 손을 아담의 손에 꼭 쥐어주셨다. 아담은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마치 자기 살과 자기 뼈를 보는 것 같았다. 아니, 자기의 살과 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의 살 중에 제일 좋은 살이요 자기의 뼈 중에 제일 좋은 뼈였다. 아담은 여인에게 말했다. '당신을 이브라고 불러야 하겠소'. 여인의 이름은 그때부터 '이브'가 되었다..."(본문 중에서).

"벗으면 부끄럽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부제로

본서는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의 천지창조부터 시작되고 있다. '아담아 놀자'란 제목으로 하루하루 천지를 지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재미있고 알기 쉽게 마치 동화이야기를 들려주듯 수록되어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적었다.

저자는 이 책을 수록하면서 오직 '개역 한글판' 성경만을 인용하며 때로는 문장을 읽기 쉽게 바꾸기도 했고 행간의 이야기를 삽입하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필자의 느낌을 적어 넣기도 했고 생각의 흐름을 따라 구약이야기에 신약의 말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것은 성경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변질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서는 '아담아 놀자', '실수하니까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 '첫날밤에 바뀐 신부', '꿈은 이루어진다', '어리석은 지혜', '이게 뭐야?', '돌비를 세우는 이유', '그만 포도주를 끊으시게', '내가 개로 보이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목수의 아들이라고?',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 '똑똑한 사람들', '못 말리는 사람들'로 나뉘어 총 120여 편의 글로 구성돼있다.

책 구입 문의는 미주 내 기독서점 또는 pastorjkmin@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